

# 한국의 비교정치학에서 아프리카 연구(1963-2020): 연구의 수, 대상 국가, 방법과 이론, 그리고 주제의 변화와 발전\*

신명순 | 연세대학교

## | 국문요약 |

이 연구는 한국의 비교정치학 분야에서 아프리카 연구의 변화와 발전을 연구한다. 분석대상은 1963년부터 2020년까지 57년 동안 발표된 373편의 학술논문이다. 아프리카 연구의 편수는 2000년대부터 급격히 증가하였다. 아프리카 연구는 1990년대를 기점으로 아프리카 지역 중심의 연구에서 국가 중심의 연구로 바뀌었다. 이 시기부터 하나의 국가를 분석하는 연구에서 두 개 이상의 국가를 분석하는 연구가 증가하기 시작하였다. 하나의 주제를 분석하던 연구에 더해 두 개 이상 주제 사이의 관계를 분석하는 연구가 새롭게 나타났다. 서술적 사례연구에 더해 비교연구와 교차국가분석연구가 증가하였고 연구모형 제시나 이론을 검증하는 연구가 증가하였다. 연구 주제에서는 민족주의, 군부 정치, 사회주의를 연구하던 추세에서 민주화, 여성, 선거, 내전, 분쟁을 많이 연구하는 추세로 바뀌었다.

주제어 | 한국 비교정치학의 아프리카 연구, 사례연구와 비교연구, 이론지향 연구, 민주화, 내전

\* 유익한 논평과 제안을 해주신 익명의 심사위원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 1. 서론

한국의 비교정치학 분야에서 아프리카를 연구한 첫 학술논문은 『국제정치논총』에 발표된 하경근(1963)의 연구였다. 이때부터 2020년까지 57년의 기간 동안 한국 비교정치학 분야에서는 아프리카를 연구한 많은 학술논문이 발표되었다. 그러나 57년의 기간 동안 한국의 비교정치학 분야에서 아프리카 연구가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진행되었는지를 체계적이고 심층적으로 분석한 연구는 존재하지 않는다. 이에 한국의 비교정치학 분야에서 아프리카 연구의 학문적 발전의 역사는 지적 공백 상태로 남아있다. 학문의 역사에 관한 고찰은 그 기간에 축적된 다양한 지식과 정보를 제공한다. 그러나 이에 못지않게 중요한 것은 기존 학문의 역사가 알고자 하는 지식을 충분히 제공했는지, 지금까지의 연구에서 부족한 점은 무엇이고 어떻게 개선해야 하는가에 관한 방향을 제시하는 점이다. 57년이라는 짧지 않은 기간 동안 축적되어 온 한국 비교정치학 분야의 아프리카 연구가 언제 어떤 국가나 지역을 어떤 방법으로 무엇을 연구했는가를 체계적으로 구명하는 것은 한국 비교정치학에서 아프리카 연구의 과거와 현재에 관한 지식을 제공할 뿐만 아니라 앞으로 수행할 연구의 방향을 제시하는 역할도 할 것이다.

한국 비교정치학에서 아프리카 연구에 관한 분석이 시기적으로 나타났던 과정이나 추세를 서술하는 수준에 그친다면 체계적이고 분석적인 연구가 될 수 없다. 이에 이 연구는 다음의 사항을 중점적으로 고찰한다. 첫째는, 시기에 따라 변화한 아프리카 연구의 양적 변화이다. 둘째는, 아프리카 연구가 분석한 지역과 국가에 대한 분석이다. 셋째는, 연구에 사용한 방법이다. 이 연구에서는 아프리카 연구가 사례연구 방법, 비교연구 방법, 교차국가분석연구 방법 중에서 어떤 방법을 사용하였는가를 고찰한다. 넷째로, 아프리카 연구의 질적 수준을 파악하기 위해 기존 연구논문들의 이론적 수준을 고찰한다. 연구가 새로운 개념이나 이론을 사례에 적용하거나, 연구모형을 설정하고 검증하여 이론을 제시하거나, 새로운 이론 정립을 목적으로 하는 연구라면 질적으로 높은 수준의 연구로 평가한다.

다섯째는 연구의 주제이다. 여기에서는 어떤 주제가 얼마나 많이 연구되었고 시기적으로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를 조사한다. 이 연구에서 고찰하는 위의 다섯 가지는 한국 비교정치학에서의 아프리카 연구의 수, 연구 대상 지역과 국가의 수, 연구 방법의 종류, 연구 주제의 종류에 관한 변화와 추세를 밝혀줄 것이다. 이러한 내용은 그동안 공백 상태로 남아있던 한국 비교정치학에서의 아프리카 연구의 상당 부분을 채우는 데 이바지할 것이다.

이 연구가 한국 비교정치학에서 아프리카 연구의 변화와 추세에 못지않게 중점을 두어 분석할 것은 기존 아프리카 연구에 대한 질적 평가이다. 다수의 아프리카 전공학자들이 기존 연구의 중요한 문제로 낮은 질적 수준을 지적하였으나 기존 아프리카 연구의 수준이 정말 낮은지를 실증적으로 분석한 연구는 한 편도 없다. 이 연구는 한국 비교정치학에서 아프리카 연구의 질적 수준이 어느 정도였고 연구의 질적 수준에서 언제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그리고 현재의 질적 수준은 어느 정도인지를 고찰한다. 이 연구는 한국의 아프리카 연구에서 어떤 연구 방법을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한지를 구체적으로 분석하기 때문에 앞으로 수행될 연구의 방향을 제시하는 데에도 이바지할 것이다.

이 점은 한국의 비교정치학 분야에 해당하지만 보다 넓은 차원에서 한국의 아프리카 지역연구에도 해당한다. 정치학 차원에서 볼 때 이 연구는 비교정치학의 중요 분석 대상인 지역연구의 연구 방향을 제시하는 데 이바지할 것이다. 이 연구에 사용한 분석 틀은 아프리카 외의 다른 지역이나 국가의 연구 동향을 분석하는 데에도 적절할 기준이 될 수 있다. 이 연구의 분석 틀을 사용하여 “한국 비교정치학에서 중동 연구” “한국 비교정치학에서 라틴 아메리카 연구” 또는 “한국 비교정치학에서 미국 연구” “한국 비교정치학에서 일본 연구” 등 지역이나 국가를 대상으로 하는 연구가 계속된다면 한국 비교정치학 연구의 지평을 넓히는 데 이바지할 것이다.

이 연구의 2장에서는 선행연구를 검토하고 연구계획을 밝힌다. 3장에서는 한국 비교정치학에서 아프리카 연구 논문의 편수가 시기별로 어떻게 변화하였는가

를 조사하고 거기에서 나타나는 특징을 밝힌다. 4장에서는 한국 비교정치학에서 아프리카 연구가 어떤 국가나 지역을 분석 대상으로 하였고 어떤 국가에 관한 연구가 과잉 또는 부족한지를 밝힌다. 또한 연구의 질적 수준을 파악하기 위해 연구 대상 국가가 하나였는지 두 개 이상이었는지를 분석한다. 5장에서는 한국 비교정치학에서 아프리카 연구의 질적 수준을 파악하기 위해, 연구에 사용한 방법을 사례연구, 비교연구, 교차국가분석연구 별로 고찰한다. 연구의 질적 수준을 평가하기 위한 기준으로 연구의 이론적 수준을 조사하며 시기적으로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를 고찰한다. 6장에서는 한국 비교정치학 분야의 아프리카 연구가 분석한 주제가 무엇이었는지, 어떤 주제가 많이 분석되었는지, 시기적으로는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를 고찰한다. 연구의 질적 수준을 분석하기 위해 연구에서 하나의 주제만을 분석하였는지 아니면 두 개 주제 사이의 상관관계나 상호 간의 영향을 조사하였는지를 분석한다. 7장 결론에서는 이 연구에서 밝힌 중요한 내용을 종합적으로 정리하고 앞으로의 연구 방향을 제안한다.

## 2. 선행연구 검토와 연구계획

### 1) 선행연구 검토

한국의 아프리카 지역연구 동향을 분석한 연구는 박원탁(1996), 박원탁·정영태·조부연(1998), 조원빈(2012c), 한건수(2013), 홍명희(2016), 황규득(2016)의 논문이 있다. 이 선행연구들은 한국의 아프리카 지역연구를 분석한 것이기 때문에 한국 비교정치학에서의 아프리카 연구를 다루는 이 연구와는 연구 범위에서 차이가 있다. 그러나 아프리카 지역연구를 분석한 선행연구에서 지적된 문제점과 앞으로의 과제로 제시된 방안 중에는 한국 비교정치학 분야의 아프리카 연구에 관한 분석에도 적용할 것이 있을 수 있다. 이에 이 연구에서는 선행연구에서 무엇이 부족하였는가를 파악하여 이를 보완할 것이며 또 선행연구에서 제시된

앞으로의 과제 중에서 적실성이 있는 부분은 이 연구에 적용하여 분석한다.

박원탁(1996)은 아프리카 지역연구의 추세를 전문 서적, 학술지, 단행본, 석박사학위 논문의 숫자를 시기와 분야별로 조사하였다. 시기는 1980년까지의 시기(1시기)와 1981년부터 1995년까지(2시기)의 둘로 나누었는데, 1시기에는 학술지에 발표된 논문이 155편이던 것이 2시기에는 526편으로 증가하였음을 밝혔다. 분야별 분류는 정치, 경제, 사회문화, 대외관계로 나누어 학술지 논문들의 편수를 조사하였는데 정치학 분야는 1시기에 한 편도 없던 것이 2시기에는 29편이었다고 밝혔다(5, 8). 박원탁 논문의 문제는 분석한 학술지들이 어떤 학술지인지를 밝히지 않은 점과 학술논문의 편수가 틀리는 점이다. 저자가 이 연구에서 조사한 바에 의하면 1980년까지 아프리카를 연구한 정치학 분야 논문이 한 편도 없는 것이 아니라 <표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비교정치학 논문만도 1960년대에 10편, 1970년대에 16편으로 26편에 달하였다. 또한 1981-95년 기간에도 비교정치학 논문이 52편 발표되었다. 박원탁은 한국의 아프리카 지역연구에서 사용된 연구 방법이나 연구 주제에 관해서는 아무런 분석을 하지 않았으면서도, “1980년까지의 연구들은 연구 방법이 개략적이고 서술적이던 것이 1981년부터의 기간에는 특정 분야를 설정하여 심도 있게 분석하였다,” “군부 쿠데타, 혁명운동, 자본주의와 사회주의의 발전전략, 민주화 등에 대해 심도 있는 증가가 있었다“(10-11)는 근거 없는 언급을 하고 있다. 박원탁 논문의 문제는 본인도 밝힌 바와 같이 양적 변화만을 다루었고 분석 대상으로 삼은 연구들에 대한 질적 분석은 전혀 하지 않은 점이다.

조원빈(2012c)은 1955년부터 2012년까지의 기간을 대상으로 한국의 아프리카 지역연구를 전문학술지와 학위논문, 주요 도서를 중심으로 사회과학 분야에 한정하여 조사하였다. 그는 정치와 정책에 관련된 연구업적이 397편이었고 그중에 학술논문은 286편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조원빈의 연구에 포함된 학술논문에는 학술논문집이라 할 수 없는 『북한』, 『지방행정』, 『상공경제』 등의 시사 종합지에 게재된 시사해설적 글들이 포함되어있다. 조원빈의 논문에서는 연구 편수의 시

기적 변화에 관한 분석 외에는 한국의 아프리카 연구 동향이나 추세에 관한 다른 분석이 없다.

한건수(2013)는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연구의 주제별 현황을 분석하여 아프리카 지역연구에서 가장 비중을 차지하는 분야는 정치와 경제 분야이며, 1986년부터 2009년 사이에 『한국아프리카학회지』에 게재된 논문 228편 중에서 정치 관련 주제가 26.8%인 61편으로 가장 많았음을 밝혔다(173). 그는 아프리카 지역연구가 상대적으로 발전하지 못한 원인을 한국의 아프리카 연구가 다른 분과 학문으로부터 고립되어 있고, ‘지역연구자’와 ‘분과 학문 연구자’ 사이에 소통이나 경쟁 및 협력이 없었기 때문으로 보았다. 앞으로의 과제는 ‘지역연구자’와 ‘분과 학문 연구자’의 경쟁과 협력을 강화하고 학문적 정치성과 방법론적 엄격함을 중시하여 연구의 질적 수준을 높이고(168-169) “분과 학문에서 이론적으로 쟁점이 되는 연구 주제가 아프리카 지역연구에서도 다루어져, 아프리카 지역연구가 해당 분과의 학술논의에 이바지해야 함”(180)을 제안하였다. 홍명희(2016)는 아프리카에 관한 학위논문, 전문 학술논문집에 실린 연구논문, 출판물을 대상으로 국내 아프리카 연구의 현황을 조사하였다. 그는 연구가 정치, 경제 등의 사회과학 분야에 편중되어 있음을 문제로 지적하였고(382) 이의 해결을 위해 학문적 영역을 벗어난 종합적 연구가 이루어져야 하며(387-388) 연구 주제의 다양성과 연구의 질적 수준을 높일 것을 주장하였다.

황규득의 연구(2016)는 2000년부터 2014년까지 15년 동안 『한국아프리카학회지』와 『아프리카연구』에 게재된 논문을 대상으로 아프리카 지역연구를 학자들의 세대별, 전공 분야별, 그리고 연구의 지역별로 나누어 분석하였다. 정치학 분야와 관련하여, 아프리카 연구학자의 1세대는 아프리카 연구를 시작하고 주도한 하경근, 박원탁 등이며 2세대는 1980년대 중후반부터 2000년대 초반에 아프리카 전공으로 박사학위를 받고 연구 활동을 주도하여 온 김영수, 서상현, 신원용, 이한규, 한양환, 황규득을 들었다. 3세대는 2000년대 중후반부터 아프리카 학술 활동에 합류하여 2010년 이후에도 계속해서 아프리카 지역연구의 발전에

기여하고 있는 김동석, 정구연, 조원빈, 조정인 등을 들었다(164-166). 아프리카 지역 내 연구 분포 면에서는 동부아프리카에 관한 연구가 가장 많았고, 남아공 중심의 남부지역, 서부지역, 북부지역 순으로 연구 편수가 적어짐을 밝혔다(168-171).

황규득은 아프리카 지역연구의 문제로 인문 사회과학계의 일반적 수준이나 여타 지역에 대한 연구성과와 비교하여 양적으로나 질적으로 미흡한 점, 전문연구자의 부족, 자료접근의 제약성으로 인한 아카이브 구축의 비현실성, 연구지원의 빈약함을 들었다. 학술적 차원의 문제로는 일관된 분석 틀과 개념화를 위한 연구라기보다는 서술적 방법을 통한 개론 수준인 점, 해당 지역의 1차 문헌 및 자료 보다는 2차 자료에 의존하는 연구물의 비중이 높은 점, 그리고 2차 자료에 의존하다 보니 서구적 시각에서 아프리카 지역연구를 투영하는 문제를 지적하였다(172). 특히 아프리카를 중심으로 한 주요 이론 또는 담론에 대한 지적 관심이 지역연구의 활성화로 이어지지 못하였음을 지적하고 우리 사회과학계에 큰 영향을 미친 근대화, 문화 다원주의, 종속이론, 개발, 민주주의, 군 쿠데타, 내전 등에 관한 이론들이 아프리카와 깊은 연관성을 내포하고 있음에도 아프리카를 중요한 사례로 분석하지 않는 학문적 풍토를 지적하였다(173).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안으로 어문학 및 인문학 중심으로 학부 교육을 받은 후 대학원 과정에서 어문학이나 역사학 및 정치학 분야로 전공을 확장한 ‘지역연구자’들과 다른 분과 학문 특히 사회과학 분야에서 학문적 훈련을 받고 연구대상지를 아프리카로 정한 ‘분과 학문 연구자’ 사이의 학문적 소통이나 경쟁 및 협력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보았다. 또한 장기적으로는 아프리카에 대한 자료의 축적과 응용방식의 활용을 바탕으로 한 현지 조사의 활성화, 그리고 새로운 아프리카 지역연구방법론의 틀을 제시하여 아프리카에 대한 한국적 이해도를 높일 것을 제시하였다(177).

선행연구 중에는 한국의 아프리카 연구를 분석한 것이 아니라 한국 정치학에서 비교정치연구(신명순 2013)를 분석한 논문이 있다. 2003년부터 2012년의 10년을 대상으로 한국 정치학에서 연구된 비교정치 논문 1,833편을 분석한 이 연구

는 한국 비교정치 연구의 대상 국가와 지역(166-179), 그리고 연구의 주제(180-188)를 조사하였다. 이 연구와 신명순의 선행연구는 분석 대상 기간에 차이가 있으나 세계 각 지역이나 국가를 대상으로 한 연구의 추세를 파악하는 데는 도움이 될 것이다. 이 연구의 ‘분석 대상 지역 및 국가’ 부분과 ‘연구의 주제’ 부분에서 파악한 결과를 신명순 논문의 결과와 비교하여 두 연구 사이의 유사성과 상이성을 분석한다.

선행연구들이 검토한 현황 분석에서는 분석자료가 학술논문, 학위논문, 저서, 보고서 등으로 일관성이 없고, 연구 대상 기간도 서로 다르며, 선행연구가 중점을 둔 내용도 다양하여 아프리카 연구의 종합적 현황을 일목요연하게 파악하기가 힘들다. 선행연구에서 도움이 되는 점은 기존 아프리카 연구의 문제점을 제시하고 이의 해결을 위한 제안들이다. 선행연구들이 아프리카 연구의 개선책으로 공통으로 지적한 것은 아프리카 연구의 양적 성장에 상응하는 질적 성장이 부족하다는 점이다. 그러나 선행연구의 이러한 지적은 기존 연구를 체계적이고 심층적이며 종합적으로 분석한 후에 제안한 것이 아니다. 그래서 기존 연구의 어떤 점을 어떻게 개선하는 것이 연구의 질을 높이는 것인가에 관한 구체적 제안이 부족하다. ‘지역연구자’와 ‘분과 학문 연구자’의 협력도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방안제시보다는 당위적인 방안만을 제시하고 있다. “분과 학문에서 이론적 쟁점이 되는 주제를 지역연구에서 적극적으로 다루어야 한다”(한건수, 2013, 180)는 제안이나 황규득의 제안(2016, 173)은 실천이 어렵지 않은 제안으로 평가할 수 있다.

위와 같은 선행연구들의 현황 분석에서 나타난 미흡한 점이나 체계적이지 못한 점을 보완하고 선행연구자들이 강조한 연구의 질적 수준을 높이기 위해 이 연구는 다음과 같은 점에 중점을 두어 분석한다. 첫째, 분석을 위한 자료로는 보고서 수준의 글이나 시사종합지에 게재된 시사해설적 글들을 제외하고 전문 학술논문집에 게재된 학술논문만을 대상으로 분석한다. 둘째는 한국 비교정치학에서의 아프리카 연구에 대한 검토를 질적인 면에 중점을 두어 분석한다. 연구의



질적 수준은 연구자들이 사용한 연구 방법과 연구가 이론지향적 성격을 갖는가로 평가한다. 또한 연구의 주제가 정치 상황의 변화를 반영하는 시의적절한 것인지를 검토한다. 연구 주제의 다원화와 더불어 아프리카에서만 독특하게 나타나는 정치 현상을 분석하는 주제의 연구가 있는가를 분석하며, 분과 학문인 정치학에서 이론적 쟁점이 되는 주제를 아프리카 사례로 어느 정도나 검증하고 있는지를 분석하여 선행연구에서 제시한 연구 방안을 반영한다.

## 2) 연구계획

이 연구의 분석 대상은 아프리카대륙의 54개 국가이다. 아프리카를 인종이나 언어와 종교 등의 사회문화적 배경으로 분류할 때는 북아프리카를 아랍지역과 함께 연구하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정치학에서 후진국, 신생국, 개발도상국 또는 제삼세계로 불린 지역을 하나의 연구 대상으로 분석하였던 이유는 이 지역의 정치 상황이나 이 지역에서 나타난 정치 현상이 유사성이 많았기 때문이다. 이런 면에서 북아프리카와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지역은 인종적 사회문화적으로는 다른 면이 있으나 정치 상황이나 정치 현상, 정치적 사건의 발생 면에서는 유사성이 많다. 이에 북아프리카 지역을 아프리카대륙에서 분리하지 않고 아프리카대륙의 모든 국가를 대상으로 아프리카 연구의 경향이나 추세를 분석하는 것은 문제가 없을 것이다.

이 연구에서는 한국의 비교정치학 분야에서 아프리카를 연구한 논문 중에서 전문 학술논문집에 게재된 연구만을 분석 대상으로 한다. 전문 학술논문집이란 학회, 대학, 연구소에서 정기적으로 발행하는 논문집이다. 따라서 일반 대중을 독자로 하는 시사 종합지에 게재된 시사평론 성격의 글들은 이 연구의 분석 대상에서 제외한다. 또한 기존 연구 결과를 인용하면서 주(註)로 출처를 밝히지 않은 글들은 분석 대상에서 제외한다.

이 연구는 한국 비교정치학에서의 아프리카 연구를 분석하기 때문에 정치학

중에서도 비교정치학 분야의 학술논문만을 분석 대상으로 한다.<sup>1)</sup> 이 연구에서 분석 대상을 비교정치학 분야의 연구만으로 한정하는 이유는 정치학의 하부 분야는 연구의 주제나 대상 면에서 독특한 특성이 있어서 하부 분야를 분리하여 연구하는 것이 더욱 정확하고 세밀한 지식이나 정보를 얻는 데 도움이 되기 때문이다. 한국의 아프리카 연구에는 국제정치 분야의 연구도 많아서 “한국 국제정치학에서 아프리카 연구”와 같은 후속 연구가 이루어진다면 한국의 정치학 연구와 아프리카 연구의 지평을 확대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비교정치학은 세계의 국가들에서 나타나는 정치 현상에서 유사성과 상이성을 파악하고 이를 바탕으로 국가 내에서 나타나는 정치 현상의 추세나 유형 그리고 추세나 유형의 변화를 연구한다. 더 나아가서는 이러한 추세나 유형을 설명하고 예측하기 위한 가정이거나 가설을 설정한다(Wiarda 1993, 12). 비교정치학에서는 세계의 모든 국가가 연구 대상이 되기 때문에 비교정치학의 연구는 다음의 6가지지를 포함한다. 첫째는 하나의 국가에서 발생하는 한 가지 사례의 연구이다. 이때 이 연구의 결과는 다른 국가들에도 비교할 수 있는 개념적 틀을 제공해야 한다. 일반화할 수 있는 행태나 추세를 분석하는 비교연구는 이러한 결과를 적용할 수 있는 보다 포괄적인 차원에 관심을 두기 때문에 한 국가의 사례를 역사적으로 연구하는 것과는 차이가 있다. 둘째는 두 개 또는 그 이상의 국가들을 연구하는 것으로 이러한 연구는 비교연구의 핵심이다. 셋째는 아프리카, 중동, 라틴 아메리카, 유럽 등의 지역을 대상으로 분석하는 지역연구이다. 하나의 지역이 공통된 특징을 공유한다면 연구자는 이들을 상수로 두고 다른 특징이 미치는 영향을 검증할 수 있다. 지역연구에서는 전체 지역 또는 지역 내 국가들 사이의 비교를 바탕으로 결과를 찾아낼 수 있다. 넷째는 한 지역과 다른 지역을 대상으로 연구

1) 따라서 비교정치라기보다는 국제정치 성격이 강한 “중국의 대 케냐 FDI와 케냐인들의 인식,” “미국과 중국의 해외원조가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국가들의 UN총회 투표에 미치는 영향,” “아프리카에서 수행되는 프랑스의 문화적 공적개발원조(ODA)에 대한 연구,” “한국의 공적 개발원조와 외국인 직접투자의 상관관계에 관한 시론적 연구: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지역을 중심으로”와 같은 논문들은 이 연구의 분석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하는 것이다. 예를 들면 아프리카와 중동의 군부 정치를 연구하는 것이다. 다섯 번째는 세계의 많은 국가를 대상으로 연구하는 것이다. 이러한 연구는 유엔이나 세계은행 등이 세계의 모든 국가를 대상으로 수집한 자료를 이용한다. 이러한 연구는 전 세계 국가들 또는 일부 특정 국가들을 대상으로 통계 방법을 사용하여 두 개 또는 그 이상의 주제들 사이에서 나타나는 상관관계를 연구한다. 여섯 번째는 국가나 지역이 아니라 주제를 중심으로 비교적 관점에서 분석하는 연구이다. 예를 들면 국가의 변화하는 역할 또는 민주화 과정을 비교적 관점에서 연구하는 것이다(Wiarda 1993, 13-15). 이 연구에서는 아프리카를 연구한 학술논문 중에서 위의 여섯 가지 중에서 주제 중심의 연구를 제외한 다섯 가지 연구를 비교정치학 연구에 포함해 분석 대상으로 한다. 왜냐하면 이 연구에서 분석하는 373편의 학술논문들은 아프리카 지역이나 아프리카 국가를 분석한 연구들만을 선정하였기 때문이다.

이 연구에서 분석하는 373편의 학술논문들은 다음의 방법으로 수집하였다. 2020년도 한국정치학회 회원 명단 중에서 본인의 전공 분야를 비교정치나 특정 지역 연구라고 밝힌 667명을 선정하였다. 학술연구정보서비스(RISS)의 국내 학술논문 항목에 667명의 이름을 입력하여 이들의 연구논문 목록을 찾은 후 목록 중에서 비교정치학에 해당하는 아프리카 논문만을 선정하였다. 이러한 자료 수집에서 빠진 논문을 보완하기 위하여 다음 단계로, RISS 국내 학술논문 항목의 주제어 항목에 아프리카를 입력하여 나온 목록 중에서 비교정치학에 해당하는 논문들을 추가로 선정하였다. 다음으로 위의 주제어 항목에 아프리카 54개 국가의 이름을 입력하여 나온 목록에서 기존에 선정한 자료에 빠진 논문이 있으면 보완하였다. 이렇게 수집한 373편의 학술논문을 게재한 학술논문집은 97종이었다. 97종의 학술논문집 중에서 비교정치학 분야의 아프리카 논문을 단 한 편만

---

2) 가장 많은 비교정치 분야 연구를 게재한 논문집은 『한국아프리카학회지』로 68편이었고, 『중동연구』가 35편, 『아프리카연구(Asian Journal of African Studies)』가 29편, 『한국중동학회논총』이 25편, 『한국이슬람학회논총』이 23편이었다. 다음으로는 『국제정치논총』이 13편, 한국외대에서 발간하는 『국제지역연구』가 11편, 서울대에서 발간하는 『국

게재한 학술논문집은 57종이었다.

이 연구에서는 373편의 학술논문이 발표된 시기의 분석은 연도별로 발표된 논문의 편수를 조사하면서 동시에 시기를 10년 단위로 구분하여 10년 단위로 나타나는 변화의 추세를 조사한다. 연구 대상인 지역이나 국가의 분석에서는 연구 대상이 지역인지 개별 국가인지를 구별하여 지역연구와 사례연구의 추세에서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를 조사한다. 분석 대상이 개별 국가이면 어떤 국가가 주로 연구되었으며 연구 대상이 되지 않은 국가는 어떤 국가인가를 조사한다. 연구 대상 국가의 분석에서 연구의 질적 수준을 파악하기 위해 하나의 국가를 대상으로 한 사례연구인지 아니면 두 개 또는 그 이상의 국가를 분석하였는지를 조사한다. 하나의 국가에서 나타나는 정치 현상을 분석하는 연구는 연구 결과의 기술형식이 서술적 성향이 강하고 분석적 면이 약한 경우가 많다. 그러나 두 개 이상의 국가를 대상으로 하는 연구 방법에서는 같은 주제의 정치 현상이 두 국가에서 유사하게 나타나는지 아니면 상이하게 나타나는지를 파악할 수 있다. 이런 점에서 두 개 이상의 국가를 분석하는 연구는 하나의 국가를 분석하는 사례연구보다 이론적 수준이 더 높을 수 있다.

아프리카 연구의 질적 수준을 파악하기 위해, 두 개 이상의 국가를 분석 대상으로 한 연구는 단순히 분석 대상 국가의 숫자만 늘린 것인지 아니면 두 개 국가 사이에 나타나는 차이를 분석한 비교연구인지를 조사한다. 두 개 이상의 국가를 대상으로 하더라도 단순하게 이 국가들에서 나타나는 현상을 국가별로 나열하거나 서술하는 것이라면 이론적 수준은 높다 할 수 없다. 이에 비해 두 개 이상

---

제·지역연구」가 10편이었다. 다음으로 『지중해지역연구』 8편, *International Area Studies Review* 5편, 『한국외대 종합연구소논총』·『중동문제연구』·『킬리만자로』 각 4편, 『건국대 법경논총』·『건국대 학술지』·『경희대 사회과학연구』·『아랍어와 아랍문학』·『제삼세계』 각 3편, 『건국대 교수논단』·『국제개발연구』·『국제정치연구』·『글로벌정치연구』·『단국대 논문집』·『동서연구』·『선거연구』·『세계지역연구논총』·『아시아리뷰』·『아시아 여성연구』·『역사비평』·『의정연구』·『중앙대 정경논집』·『평화연구』·『평화학연구』·『포르투갈·브라질연구』·『한국외대 논문집』·『한국외대 연구논총』·『한국정치학회보』·『한국프랑스학회논집』·*International Area Review* 각 2편이었다

국가들에서 나타나는 현상을 비교하면서 거기에서 어떤 유사성이 있고 어떤 상이성이 있는가를 체계적으로 분석한다면 질적으로 수준이 높은 결과를 얻을 수 있다.

아프리카 연구의 질적 수준을 파악하기 위한 또 하나의 방법은, 연구 주제를 한 가지만 연구하는지 아니면 두 개 또는 그 이상의 주제를 연구하는지를 조사하는 것이다. 한 가지 주제만 분석하는 데 비해 두 개 또는 그 이상의 주제를 연구하게 되면 주제들 사이에 어떤 관계가 있는지와 하나의 주제가 다른 주제에 미치는 영향이 무엇인지를 파악할 수 있다. 더 나아가 주제들 사이에서 나타나는 인과관계를 유추할 수도 있다. 이런 점에서 두 개 또는 그 이상의 주제를 다루는 논문이 어느 정도나 되며, 이런 연구 방법은 언제 시작되었으며 또 얼마나 확대되었는가를 밝혀 아프리카 연구의 질적 수준을 평가한다.

학술논문이 새로운 이론을 찾아내기 위한 것이거나 또는 다른 국가나 사례에 적용할 수 있는 모형(model)을 정립하기 위한 연구라면 이들은 이론적 수준이 높은 연구라 할 수 있다. 이처럼 서술적으로 설명하는 수준을 넘어, 이론적 가설이나 정치 현상 상호 간의 영향을 구명하려는 논문이 많으면 한국 비교정치학의 아프리카 연구는 질적인 면에서 발전이 있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정치 상황은 변하는데 연구에서 다루는 주제에는 아무런 변화가 없다면 질적인 면에서 발전이 없는 연구이다. 이와 반대로 다양하게 변하는 국내 정치환경에 따라 관심이 높은 주제를 시의적절하게 분석한다면 연구의 질적 수준이 높은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또 한국 정치학에서 중요하게 연구되고 있는 주제를 아프리카 사례에 적용하여 분석하는 연구가 많이 발표된다면 아프리카 연구의 질적 수준이 한국 정치학의 연구 수준에 비해 낮다는 평가는 할 수 없을 것이다.

이 연구에서 분석하는 학술논문의 발표 시기, 분석 대상 국가나 지역, 연구 방법, 이론적 수준, 연구의 주제는 논문의 발표 시기와 논문 제목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논문 제목만으로 판단이 어려운 경우에는 논문의 요약을 참조하며 요약으로도 불충분한 경우에는 논문의 서론 또는 전체 논문을 읽고 판단한다.

### 3. 한국 비교정치학에서 아프리카 연구 편수의 시기적 변화

한국 비교정치학에서 아프리카를 분석한 연구가 학술논문집에 처음으로 게재된 것은 1963년으로, 하정근(1963)의 “남아공의 Apartheid 정책연구: 주로 원주민문제를 중심으로”가 『국제정치논총』 창간호에 게재되었다. 한국에서 정치학도가 처음 대학에 생긴 것이 1946년이고 비교정부론, 각국 정부형태론, 현대 정부형태론 등의 과목이 서울대학교 정치학과에 개설된 것이 1946년부터 1949년 기간인 것<sup>3)</sup>을 고려하면 17년이 지나서야 아프리카를 연구한 논문이 처음으로 발표된 것은 시기적으로 많이 늦은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 그러나 한국의 비교정치학에서 학술논문이 처음으로 학술논문집에 게재된 것이 1955년인 것<sup>4)</sup>을 고려하면 아프리카 연구가 다른 지역들의 연구에 비하여 크게 늦은 것은 아니었다.<sup>5)</sup> 아프리카 지역이나 국가를 연구한 논문들은 이후 계속 발표되어 1960년대에 한상무(1964), 하정근(1965), 한창규(1965), 이영규(1967), 배항달(1968), 유정열(1968), 이호재(1969)의 논문이 발표되었다. 한국 비교정치학 분야에서 아프리카 연구 편수는 1970년대에도 별로 증가하지 않아 1971년부터 1980년까지의 10년 동안 16편만 발표되었다. 1980년대에 와서 한국 비교정치학에서의 아프리카 연구는 조금씩 증가하여 1980년대에는 발표된 논문 편수가 36편으로 증가하였고 1990년대에는 54편으로 증가하였다.

- 
- 3) 구범모, 1967. “비교정치학 20년의 반성” 『한국정치학회보』 제2집 7-75. 부록 2: 1945-66년까지의 정치학과(행정학과) 교과과정 분야별 일람표 54쪽.
  - 4) 1955년에 강상운, 김기범, 김영두, 김형수, 박관숙, 한동섭의 비교정치학 분야 논문 6편이 처음으로 학술논문집에 게재되었으며 김형수는 독일과 이탈리아, 한동섭은 영국의 정치를 연구하였다.
  - 5) 저자가 1955년부터 1963년까지의 기간 동안 한국의 비교정치학에서 비서구 국가를 연구한 논문들을 조사한 바에 의하면 인도(1958), 쿠바(1961), 인도네시아(1962), 아시아(1959, 1961, 1963), 동남아(1960, 1961), 극동(1962)을 대상으로 분석한 9편에 불과하였다.

〈표 1〉 한국 비교정치학에서 아프리카 연구의 연도별 연구 편수

1960년대	'61	'62	'63	'64	'65	'66	'67	'68	'69	'70	합계
	0	0	1	1	2	0	1	2	1	2	10
1970년대	'71	'72	'73	'74	'75	'76	'77	'78	'79	'80	합계
	0	1	4	1	1	2	1	3	3	0	16
1980년대	'81	'82	'83	'84	'85	'86	'87	'88	'89	'90	합계
	3	1	0	6	4	6	7	4	2	3	36
1990년대	'91	'92	'93	'94	'95	'96	'97	'98	'99	2000	합계
	2	3	6	4	1	9	4	16	7	2	54
2000년대	'01	'02	'03	'04	'05	'06	'07	'08	'09	'10	합계
	14	12	4	8	8	11	9	14	8	13	101
2010년대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합계
	13	18	19	16	20	19	9	11	18	13	156
총합계											373

출처: 저자가 작성한 것이다.

한국의 비교정치학에서 아프리카를 연구한 논문의 편수가 괄목하게 증가한 시기는 2001년부터이다. 2000년대에는 한 해에 10편 이상의 논문이 발표된 해가 2001년, 2002년, 2006년, 2008년, 2010년의 다섯 번이나 있었고 10년 동안 101편이 발표되었다. 이 숫자는 1990년대 54편에 비하면 거의 2배에 달하는 것으로 한국 비교정치학에서의 아프리카 연구가 본격적인 궤도에 올라서기 시작하였음을 나타낸다. 2010년대에는 전체 논문 편수가 156편으로 증가하여 아프리카 연구의 활성화가 지속되었음을 나타낸다. 특히 2017년을 제외한 모든 해에는 매년 발표된 논문이 10편을 넘었고 2015년에는 한 해 동안 20편의 아프리카 연구논문이 발표되는 급성장을 보였다. 이것은 2000년대에 시작된 한국 비교정치학 분야에서의 아프리카 연구의 활성화가 지속되었음을 나타내는 것으로 앞으로도 이러한 추세가 계속되어 아프리카 연구의 활성화가 지속될 것으로 기대할 수 있다.

한국의 비교정치학 분야에서 아프리카를 분석 대상으로 한 논문 수가 신명순

(2013)의 선행연구에서 밝힌 아프리카 연구논문 수와 어느 정도 일치하는지를 보면 다음과 같다. <표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2003년부터 2012년까지의 10년 동안 발표된 논문의 수는 106편이었다. 그러나 신명순의 연구에서 조사한 위의 기간에 해당하는 논문 편수는 26편(아프리카 지역 8편, 개별 국가 14편, 2개 국가 4편)이었다(167, 172, 175). 신명순의 선행연구에서 밝힌 아프리카 연구논문 편수가 이렇게 적은 것은 선행연구가 한국 비교정치학에서 발표된 모든 논문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자료 수집이 철저하게 이루어지지 못하였기 때문으로 볼 수 있다. 두 연구 사이에 분석 대상 논문 수에서 큰 차이가 나는 것은, 한국 비교정치학 분야의 아프리카 연구를 분석하는 이 연구의 자료가 훨씬 더 치밀하고 체계적으로 수집되었음을 방증하는 것이다.

#### 4. 한국 비교정치학에서 아프리카 연구의 대상 지역과 국가

한국의 비교정치학 분야에서 아프리카 연구들은 어떤 지역이나 국가를 분석 대상으로 하였으며 이들이 전체 연구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어떻게 변화하였는가를 보면 <표 2>와 같다. <표 2>에서 나타나는 첫 번째 특징은 1970년대와 1980년대에는 지역연구가 개별 국가를 연구하는 사례연구보다 많았던 점이다. 1970년대에는 전체 연구에서 차지하는 지역연구의 비율이 81.2%였고 1980년대에는 58.3%로 낮아졌으나 전체의 50%를 넘었다. 그러나 1990년대에는 이 비율이 22.2%로 급격하게 감소하였고 국가를 분석한 연구는 77.8%로 많이 증가하였다. 2000년대에도 지역연구는 15.8%에 불과하였고 국가를 분석한 연구는 84.2%로 더욱 증가하였다. 2010년대에는 지역연구의 비율이 21.2%였고 국가를 연구한 비율은 78.8%였다. 연구 대상 지역이나 국가가 차지하는 비율에서 나타나는 이러한 변화는 한국의 비교정치학에서 아프리카 연구가 초기에는 새롭게 독립한 국가들에 관한 자료가 거의 없었고 자료에 접근하기도 어려웠으므로 개별 국가를 대상으로 한 연구가 부진하였으나, 1990년대부터 아프리카 연구학자의 관심



이 전체적인 지역보다는 개별 국가에서 나타나는 정치 현상으로 전환하기 시작하였음을 보여준다. 그러나 이러한 변화는 연구의 질적 수준의 성장과는 관련이 없는 변화였다.

아프리카 연구의 초창기인 1960년대에도 질적으로 수준이 높은 논문이 한 편 발표되었다. 한창규(1965)의 논문은 부룬디와 말리 두 국가를 대상으로 헌법을 연구하였다.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두 개의 국가를 분석하는 연구는 하나의 국가만을 분석하는 연구보다 여러 가지 지식과 정보를 제공하는 면에서 질적 수준이 높다고 할 수 있다. 특히 1960년대와 1970년대에는 이 연구를 제외한 모든 연구가 하나의 국가만을 분석 대상으로 하였는데 1965년에 부룬디와 말리 두 국가를 연구한 논문이 발표된 것은 아프리카 연구의 초창기에도 일부 연구는 질적 수준이 높았음을 나타낸다.

1980년대에 들어 한국 비교정치학의 아프리카 연구에서는 연구의 질적 면에서 새로운 변화가 나타났는데, 리비아, 알제리, 이집트의 세 국가를 대상으로 군사쿠데타를 연구한 하병주(1986)의 논문이 발표되었다. 이 연구는 한국 비교정치학의 아프리카 연구에서 세 개 국가를 분석한 최초의 연구였다. 세 개의 국가를 연구 대상으로 분석하는 연구는 두 개 국가를 대상으로 분석하는 연구와 마찬가지로 사례연구보다 더 여러 가지 지식을 제공하기 때문에 질적 수준이 높은 연구로 평가할 수 있다. 그러나 1980년대에는 두 개 이상의 국가를 분석 대상으로 한 연구가 한 편에 그쳐 연구 수준의 향상에서 별다른 변화가 없었음을 나타낸다. 1980년대에는 비교연구가 처음으로 한 편이 발표되었다. 비교연구 방법을 사용한 연구에 관해서는 5장에서 자세하게 논의한다.

1990년대에는 분석 대상으로 삼은 국가의 수에서 두 개 국가를 분석한 연구가 4편, 세 개 국가를 분석한 연구가 1편 발표되었다. 두 개 이상의 국가를 분석 대상으로 한 연구의 수와 비율이 1980년대에 비하여 5편으로 증가하기는 하였으나 이러한 유형의 연구가 전체 연구의 9.3%에 지나지 않아 1990년에도 연구의 질적 수준은 높지 않았다. 1990년대에 발표된 54편의 논문을 위아르다의 다섯

가지 유형으로 분류하면, 1개 국가를 분석한 사례연구가 37편(68.5%), 지역연구로는 아프리카 전체 지역을 연구한 12편과 아프리카 지역 내의 2개 국가를 분석한 3편을 합하여 15편(27.8%)이었고, 아프리카 지역의 국가와 중동 지역의 국가를 대상으로 분석한 연구가 2편(3.7%)이었고 비교연구는 3편이 발표되었다.

2000년대에는 두 개 국가를 분석 대상으로 한 연구가 17편으로 증가하였고 10개 국가를 분석한 연구가 1편으로 이들이 차지하는 비율은 전체 101편 연구의 17.9%로 증가하였다. 이것은 1990년대의 9.3%보다는 두 배 정도 증가한 것으로 연구의 질적 수준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 조금 높아지는 긍정적 추세를 보였다. 2000년대에는 사례연구가 67편(66.3%), 지역연구가 아프리카 지역 16편과 아프리카 내의 개별 국가 분석 6편을 더하여 22편(21.8%), 아프리카 지역과 다른 지역을 다룬 연구가 12편(11.9%)이었다<sup>6)</sup>. 비교연구는 6편이었다.

2010년대에는 두 개 국가를 분석한 연구가 15편으로 전체 연구의 9.6%를 차지하였고 3개 이상의 국가를 다룬 연구가 10편으로 전체 연구의 6.4%를 차지하였다. 이 두 가지를 합하면 전체 연구의 16%가 2개 또는 그 이상의 국가들을 분석하여, 연구의 질적 수준의 성장은 2000년대보다 조금 낮아지는 추세를 보였다. 그러나 2010년대에는 3개국, 4개국만이 아니라 8개국, 15개국, 16개국, 20개국을 분석 대상으로 한 연구들이 발표되었고 연구 방법에서 통계 방법을 사용하는 새로운 변화가 나타난 점은 고무적인 변화였다. 아프리카의 여러 국가에서 공통으로 나타나는 민주화, 내전, 이슬람원리주의, 정치폭력이나 갈등, 민족주의, 군부 정치 등의 주제를 대상으로 교차국가분석 방법을 사용하는 연구가 계속된다면 아프리카 연구의 질적 수준을 높이게 될 것이다. 2010년대에는 사례연구가 98편으로 전체 156편 중의 62.8%였고 지역연구는 아프리카 지역이 33편이고 아

6) 신명순(2013)의 연구에서는 2003년부터 2012년까지 아프리카를 연구한 논문은, 아프리카 지역을 분석한 것이 8편(172)이었고 개별 국가를 분석한 것은 남아공 3편, 수단, 이집트, 카메룬이 각 2편, 가나, 레소토, 르완다, 세네갈, 코트디부아르 각 1편이었다(167). 2개 국가를 분석한 것은 이집트와 터키가 2편, 남아공과 프랑스가 1편, 모로코와 요르단이 1편, 이집트와 한국이 1편이었다(175-176).

프리카 지역 내의 국가들을 분석한 연구가 16편으로 합계는 49편으로 31.4%를 차지하였다. 다른 지역이나 다른 지역 내의 국가를 분석한 연구는 9편으로 전체의 5.8%였다. 비교연구는 7편이었다.

〈표 2〉 아프리카 연구의 대상 지역과 국가(10년 단위별)

	지역	1개국	2개국	3개국 이상
1960년대 (10)	5(50%)	나이지리아 1 남아공 1 이집트 1 통일아랍공화국 1	부룬디와 말리 1	
논문 수		4(40%)	1(10%)	
1970년대 (16)	13(81.2%)	나이지리아 1 알제리 1 이집트 1		
논문 수		3(18.8%)		
1980년대 (36)	21(58.3%)	이집트 4 탄자니아 3 나이지리아 2 남아공 2 가나 1 케냐 1 통일아랍공화국 1		리비아·알제리·이집트 1
논문 수		14(38.9%)		1(2.8%)
1990년대 (54)	12(22.2%)	이집트 9 남아공 5 알제리 4 앙골라 3 리비아 2 소말리아 2 수단 2 에티오피아 2 마그레브 2 르완다, 모로코,	나이지리아·세네갈 1 남아공·케냐 1 이집트·수단 1 이집트·이란 1	알제리·이집트·이란 1
논문 수				

	지역	1개국	2개국	3개국 이상
		카메룬, 콩고민주공화국, 탄자니아, 튀니지 (각 1)		
논문 수		37(68.5%)	4(7.4%)	1(1.9%)
2000년대 (101)	16(15.8%)	남아공 26 이집트 15 르완다 4 세네갈 3 수단 3 알제리 3 모잠비크 2 카메룬 2 콩고민주공화국 2탄자니아 2 나이지리아, 레소토, 모로코, 코트디부아르, 튀니지 (각 1)	남아공·한국 2 이집트·모로코 2 이집트·터키 2 남아공·프랑스 1 남아공·헝가리 1 마다가스카르·모리 셔스 1 모로코·요르단 1 수단·콩고민주공화국 1 알제리·이집트 1 알제리·멕시코 1 이집트·사우디아라 비아 1 이집트·요르단 1 탄자니아·케냐 1 중동·북아프리카 1	아랍연합 22개국 중 아프리카 국가 10개국 1
논문 수		67(66.3%)	17(16.9%)	1(1%)
2010년대( 156)	33(21.2%)	이집트 24 남아공 8 모로코 7 르완다 5 알제리 5 케냐 5 튀니지 5 리비아 4 모잠비크 4 나이지리아 3 마그레브 3	이집트·튀니지 2 가나·나이지리아 1 남아공·베네수엘라 1 남아공·한국 1 르완다·모잠비크 1 리비아·이라크 1 모로코·알제리 1 세네갈·에리트리아 1 세네갈·코트디부아르 1 알제리·튀니지 1 이집트·터키 1	남아공·마다가스 카르·세네갈 3개국 1 마다가스카르·말 라위·모잠비크 3개국 1 모리타니·세네갈 ·코트디부아르 3개국 1 이집트·터키·이 란 3개국 1

	지역	1개국	2개국	3개국 이상
		에티오피아 3 콩고민주공화국 3 말리 2 보츠와나 2 세네갈 2 소말리아 2 남수단공화국, 레소토, 말라위, 수단, 시에라리온, 우간다, 잠비아, 적도기니, 짐바브웨, 코트디부아르, 탄자니아 (각 1)	튀니지·이란 1 튀니지·프랑스 1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동남아시아 1	이집트·사우디아 라비아·요르단· 터키 4개국 1 알제리·말리·모 로코·튀니지 4개국 1 나이지리아·니제 르·라이베리아· 말라위·말리·부 르키나파소·우간 다·탄자니아 8개국 1 15개국 1 16개국 1 20개국 1
논문 수		98(62.8%)	15(9.6%)	10(6.4%)
합계(373)	100(%)	223(%)	37(%)	13(%)

출처: 저자가 작성하였다.

한국 비교정치학의 아프리카 연구가 대상으로 하는 국가나 지역 면에서, <표 2>에서 나타나는 특징은 연구자들이 분석하는 대상 국가가 1990년대부터 다양해진 점이다. 1960년대에는 분석 대상 국가가 나이지리아, 남아공, 말리, 부룬디, 이집트, 통일아랍공화국의 6개국에 불과하였고, 1970년대에도 나이지리아, 이집트, 알제리의 3개국뿐이었고, 1980년대에도 9개국에 불과하였다. 그러나 1990년대에는 분석 대상으로 삼은 국가들이 17개국으로 다양해졌고 2000년대에도 18개국, 2010년대에는 36개국으로 다양해졌다. 특히 2010년대에는 아프리카 전체 54개국 중에서 66.7%의 국가들이 한 번 이상 연구의 대상이 되었다. 이것은 아프리카 연구에서 2010년대부터는 이전과 다른 새로운 변화가 시작되었음을 나타낸다. 그러나 다른 면에서 보면 2020년까지도 한국 비교정치학 분야 아프리카 학자들의 연구 관심은 아프리카 54개 국가 중에서 36개 국가에만 한정되었고 나

머지 18개국을 다룬 연구는 한 편도 없었다. 이 점은 아직도 한국 비교정치학의 아프리카 연구가 분석 대상으로 하는 국가 면에서 다양화되지 못한 면이 있음을 나타낸다.

<표 2>에서 나타나는 또 하나의 특징은 2000년대에 들어 아프리카의 특정 국가를 분석한 연구의 수가 급격하게 증가한 것이다. 1990년대에는 남아공을 대상으로 한 연구가 5편에 불과하던 것이 2000년대에는 26편으로 급격하게 증가하였다. 또한 2000년대에는 15편이던 이집트를 대상으로 한 연구가 2010년대에는 24편으로 많이 증가하였다. 남아공을 대상으로 한 연구가 급격히 증가한 것은 1994년 처음으로 실시된 민주 선거를 통해 아프리카민족회의(ANC)의 흑인 정부가 출범하였고 그때부터 민주화가 시작되어 이 주제를 분석한 연구가 많았기 때문이다. 또한 민주화와 더불어 시작한 남아공의 진실과 화해위원회를 분석한 연구도 많았기 때문이다. 2000년대와 2010년대에 남아공과 이집트를 분석한 연구가 많았던 데 비해 나머지 국가를 분석한 연구는 여전히 적었다. 2000년대에 세 번째로 많이 연구된 르완다에 관한 연구는 4편뿐이었다. 2010년대에는 남아공에 관한 연구가 이집트 다음으로 많기는 하였으나 연구 편수는 급격히 감소하여 8편에 불과하였고 다음으로 많은 모로코 연구도 7편에 불과하였다. 이러한 극단적 현상은 한국 비교정치학에서 아프리카 연구가 정치적 사건의 발생에 따라 연구가 급격히 증가하거나 감소하는 즉흥적 성격이 있음을 나타낸다. 중요한 정치적 사건이 발생할 때 이에 관한 연구가 증가하는 것은 당연한 현상이지만 그 사건이 끝나면 그 국가에 관한 관심도 급격하게 감소하여 연구가 계속되지 않는 현상은 바람직하지 않은 경향이라 하겠다.

1963년부터 2020년까지의 전체 연구 기간을 대상으로 아프리카를 연구한 학자들의 논문 편수를 보면 첫째가 이집트로 70편이었고 두 번째는 남아공으로 50편이었고, 세 번째는 알제리로 19편이었다. 네 번째부터는 연구 편수가 급격히 줄어 모로코가 14편, 튀니지가 13편, 나이지리아, 르완다가 각 11편, 세네갈 10편, 리비아, 모잠비크, 수단, 케냐, 탄자니아가 각 8편, 콩고민주공화국이 7편이었다.

다음으로 말리, 에티오피아가 각 5편, 소말리아와 코트디부아르가 각 4편, 마다가스카르, 말라위, 앙골라, 카메룬이 각 3편, 가나, 레소토, 보츠와나, 우간다가 각 2편이었다. 단 한 번만 연구 대상이 되었던 국가들은 남수단공화국, 니제르, 라이베리아, 모리셔스, 모리타니, 부르키나파소, 부룬디, 시에라리온, 에리트리아, 잠비아, 적도기니, 짐바브웨의 12개국이었다. 이처럼 한국 비교정치학에서 아프리카 연구는 이집트와 남아공 두 국가에 치중되어왔다. 한 번이라도 연구 대상이 되었던 38개 국가를 제외한 나머지 16개 국가<sup>7)</sup>들인 가봉, 감비아, 기니, 기니비사우, 나미비아, 베냉, 상투메프린시페, 세이셸, 에스와티니(구 스와질란드), 중앙아프리카공화국, 지부티, 차드, 카보베르데, 코모로, 콩고공화국, 토고는 한국의 비교정치학자들에 의해 단 한 번도 연구되지 않았다. 이러한 점들은 한국 비교정치학에서 아프리카 연구의 숫자가 2000년대부터 급격하게 증가하였고 57년의 기간 동안 많은 변화와 발전이 있었지만, 여전히 개선되어야 할 점이 남아 있음을 나타낸다.

## 5. 한국 비교정치학에서 아프리카 연구의 방법과 이론성

이 장에서는 373편의 학술논문을 대상으로 연구에서 사용한 방법과 논문들의 이론적 수준을 평가하여 한국 비교정치학에서 아프리카 연구의 질적 수준에 어떤 변화가 있었는가를 분석한다. 이를 위해, 사례연구에 비하면 연구의 질적 수준이 높은 비교연구나 교차국가분석연구가 언제부터 얼마나 증가하였는지를 분석한다. 또한 연구 대상인 주제 면에서 하나의 주제만을 분석하였는지 아니면 두 개 주제 사이의 상관관계나 한 주제가 다른 주제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는지를 조사한다. 이에 더해 연구가 이론을 적용하여 분석하였거나 새로운 이론이나 이론적 모형을 제시하는 연구였는지를 조사한다. 이러한 기준을 적용하면 기

7) 16개 국가 중에서 나미비아는 조원빈(2012-f)이 16개국을 분석 대상으로 한 교차국가분석 연구에 포함된 적이 있었으나 이때는 종족투표와 경제투표에 관한 설문조사 자료만 분석되었지 두 국가를 개별적 분석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니었으므로 여기에 포함하였다.

존 연구의 질적 수준에 변화가 있었는지를 밝힐 수 있을 것이다.

1960년대에 발표된 10편의 학술논문은 모두 하나의 주제만을 분석하는 사례 연구였다. 그러나 이 중에서 이영규의 논문(1967)은 당시에 한국 정치학계에 소개된 정치문화라는 새로운 개념을 적용하여 아프리카 민족주의를 분석하였다. 이 연구는 서술 중심의 사례연구가 주된 연구풍토이던 상황에서 새로운 개념을 적용한 분석적 논문이란 점에서 이론적 수준이 높았다. 1970년대에 발표된 16편의 학술논문도 모두 하나의 주제만을 분석한 사례연구였다. 그러나 이 중에서 김태창의 논문(1977)은 한국 정치학에 소개된 지 얼마 되지 않은 구조·기능주의와 심리·동태적 방법론을 적용하여 알제리 혁명의 원인을 분석하였다. 이 연구는 1960년대에 한국 정치학에 소개된 새로운 연구 방법을 적용하여 아프리카 국가의 혁명을 연구한 점에서 이론적 수준이 높은 연구였다.

1980년대에 들어오면서 한국 비교정치학의 아프리카 연구에서는 두 가지의 새로운 변화가 나타났다. 첫째는 비교연구를 한 논문이 처음으로 발표된 것이다. 박상식(1984)이 영문으로 발표한 가나에 관한 논문은 비교연구였을 뿐만 아니라 정당의 쇠퇴를 이론적으로 분석한 점에서 이론적 수준이 높은 연구였다. 그러나 1980년대에는 비교연구를 한 연구가 한 편에 불과해 새로운 변화는 시작에 불과하였다. 두 번째 새로운 변화는 하나의 주제만을 연구하던 추세에서 이 시기부터 두 개 주제 사이에 나타나는 관계를 분석한 논문이 발표되기 시작한 점이다. 두 개의 주제를 분석한 학술논문은 전체 36편 중에서 7편으로 19.4%를 차지하였다. 이러한 연구들로는, 정당과 국민통합을 분석한 윤경우(1981), 권력구조의 변화와 정책 결정을 분석한 김영문(1982), 민족주의와 사회주의를 분석한 윤경우(1984), 정치문화와 공산 세력 수용의 상관성을 분석한 강치원(1985), 비동맹회의와 아프리카정치를 분석한 홍순남(1986), 지역 정치와 경제적 성공을 분석한 김창환(1987), 범아프리카주의와 아프리카 민족주의를 분석한 오종훈(1987)의 연구가 있었다. 이러한 연구들은 단일 주제를 서술적으로 설명하는 차원에서 벗어나 두 개 주제 사이의 상관관계나 상호 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기 때문에 다른



연구에 비해 분석적이고 이론지향적이라 할 수 있다. 두 개의 주제를 분석한 연구들이 1980년대의 특정 연도에 집중적으로 발표된 것이 아니고 거의 매년 한 편씩 발표된 것은 이러한 연구 추세가 시작하면서 지속되었음을 나타낸다. 이 연구 중에서도 1945년부터 1981년까지의 기간을 대상으로 아프리카의 정치문화와 이 지역의 공산 세력 수용현황과의 상관성을 분석한 강치원의 논문(1985)은 정치문화 개념을 적용하여 분석하면서 두 주제 사이의 상관관계를 명시적으로 분석한 점에서 이론적 수준이 높은 연구였다.

새로운 연구 방법의 도입과 지속은 1990년대에도 계속되었다. 첫째로 비교연구 논문은 3편으로 증가하였는데, 케냐와 남아공의 아프리카화 정책을 비교한 박희정(1998), 이집트와 이란의 이슬람 원리주의운동을 비교한 황병하(1999), 그리고 이집트, 알제리, 이란의 이슬람원리주의를 비교한 황병하(2000)의 논문이 발표되었다. 비교연구는 전체 54편 연구의 5.6%에 불과해 여전히 저조하였다. 둘째로 두 개 주제 사이의 관계를 분석한 연구는 6편이 발표되었는데, 정당과 정치참여를 분석한 김희오(1993), 이집트의 무슬림형제단과 이슬람 사회운동을 분석한 홍순남(1993), 아프리카의 정치적 전통과 식민주의, 민주주의를 분석한 신원용(1997), 수단의 이슬람화와 남부 독립투쟁을 분석한 이종택(1997), 알제리의 정치발전과 테러리즘을 분석한 홍순남과 정상률(1998), 남아공의 여성과 민주주의 이행의 관계를 분석한 홍진주(1999)의 연구였다. 이러한 연구가 1990년대 전체 연구 54편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11.1%였다.

1990년대에도 이론적 수준이 높은 연구가 3편 발표되었다. 아프리카 국민 형성에 관한 패러다임을 연구한 최종오(1994), 엘리트로부터의 민주주의 이행을 이론적으로 분석한 신원용(1996), 앙골라의 분쟁을 세력균형이론으로 분석한 왕선애(1996)의 연구가 이에 해당한다. 1990년대에는 비교연구를 하거나, 두 주제 사이의 관계를 분석하거나, 이론적 수준이 높은 연구들이 계속해서 발표되기는 하였으나 이러한 세 가지 유형의 논문들이 전체 연구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모두 합해서 전체의 22.2%에 불과하였다. 이것은 한국 비교정치학에서의 아프리카 연

구의 질적 수준은 1990년대까지 그다지 높지 않았음을 나타낸다.

2000년대가 시작되면서 한국 비교정치학의 아프리카 연구는 질적 차원에서 이전과는 다른 변화가 나타났다. 첫째로 비교연구는 6편이 발표되어 1990년대에 비해 두 배로 증가하였다. 그러나 2000년대의 전체 학술논문 101편의 5.9%에 불과해 비교연구는 여전히 부진하였다. 비교연구를 한 논문은 튀니지의 종교정책과 그 한계를 중동 6개국 대학생의 설문조사로 비교한 최영철(2005), 공공부문 신자유주의 정책과 노동운동의 공공성을 남아공과 한국을 대상으로 비교한 김영수(2007), 알제리와 멕시코의 정치폭력을 비교한 서정민(2008), 김대중 대통령과 넬슨 만델라 대통령의 리더십을 비교한 조병남·성영실·남기정·이정민(2008), 마다가스카르와 모리셔스의 다종족사회를 비교해 아프리카 사회통합 모형을 구축한 한양환(2008), 그리고 중동과 북아프리카를 비교해 발전을 설명하고 이론화한 장지향(2010)의 연구이다. 이 중에서 아프리카 국가들인 마다가스카르와 모리셔스의 다종족사회를 비교한 한양환의 연구는 최대유사체계(most similar system)분석이었으며 남아공과 한국을 비교한 김영수와 조병남·성영실·남기정·이정민의 연구, 알제리와 멕시코를 비교한 서정민의 연구, 중동과 북아프리카를 비교한 장지향(2010)의 연구는 최대상이체계(most different system)분석이었다.

둘째로 두 개 주제 사이의 관계를 분석한 연구는 36편으로 많이 증가하였는데 이들이 전체 101편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35.6%였다. 이것은 1990년대의 11.1%에 비하면 3.1배가 증가한 것이다. 셋째로 이론을 검증하거나 분석 모형을 제시하는 등 이론적 성격이 높은 논문은 2000년대에 8편이 발표되었다. 남아공의 민주화 이행을 국가와 정치사회와 시민사회 간의 내부 동학으로 분석한 김훈(2001), 남아공을 대상으로 민주주의 이행과 시민사회 관계를 이론적으로 연구한 신원용(2003), 남아공의 민주화를 이론적으로 접근한 서상현(2006), 아프리카 분쟁의 대안적 분석 모델을 모색한 최동주(2006), 정치구조와 권력 메커니즘을 중심으로 남아공의 대통령제를 분석한 황규득(2007), 다종족 사회인 마다가스카

르와 모리셔스를 비교 분석해 아프리카 사회통합 모형을 구축한 한양환(2008), 이집트와 터키를 대상으로 이익대표의 차별적 유형을 분석한 장지향(2009), 북아프리카와 중동의 정치경제를 비교해 발전을 설명하고 이론화한 장지향(2010)의 연구들은 질적 수준이 높은 논문들이었다. 특히 아프리카 분쟁의 대안적 분석 모형을 모색한 최동주의 연구(2006)와 아프리카 사회통합 모형 구축을 연구한 한양환의 연구(2008)는 단순히 외국의 이론을 아프리카에 적용하는 차원을 넘어 아프리카를 적절하게 설명할 수 있는 이론을 모색한 점에서 아프리카 연구의 질적 수준이 매우 높아진 것을 보여준다. 이론적 성격이 높은 8편의 논문이 전체 101편의 연구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7.9%였다. 질적 수준이 높은 것으로 평가할 수 있는 비교연구, 두 개 주제 사이의 상관성 연구, 이론적 수준이 높은 연구의 세 유형을 모두 합치면 전체 101편 연구의 49.4%를 차지하는 50편이다. 이러한 세 가지 유형의 논문들은 전체 연구의 절반을 차지해 한국 비교정치학에서의 아프리카 연구가 2000년대에 들어 양적으로만 증가한 것이 아니라 질적으로도 크게 발전하였음을 나타낸다.

2010년대에도 한국 비교정치학에서의 아프리카 연구에는 변화와 발전의 추세가 계속되었지만, 비교연구에서는 별다른 진전이 없었다. 이 시기에 비교연구는 7편이 발표되어 전체 156편의 4.5%를 차지하였다. 이 비율은 2000년대의 5.9%보다도 1.4%가 감소해 아프리카 연구에서 비교연구는 계속해서 활성화되지 못하였음을 나타낸다. 비교연구를 한 논문으로는 에리트리아와 세네갈 카사망스의 분리주의 내전을 비교한 김동석(2012), 튀니지와 이집트의 아랍의 봄을 비교한 박찬기(2014), 르완다와 모잠비크의 재건에서 공공부문의 개혁을 비교한 김판석과 아라야, 파이어히위트(Araya, Firehiwot G. 2013). 이집트의 무바라크 대통령과 맥베스를 비교한 엘아스카리, 모하메드(Elaskary, Mohamed 2015), 이집트와 중동국가들인 터키·사우디아라비아·요르단의 이슬람주의 운동을 비교한 안승훈(2016), 지역발전에서 모잠비크 여성의 역할을 비교한 왕선애(2016), 그리고 남아공, 세네갈, 마다가스카르의 선거제도와 민주주의 공고화를 비교한 오재익·

조원빈(2018)의 연구가 있다.

두 번째로, 두 개 주제 사이의 관계나 상호 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연구는 전체 156편 중에서 50편으로 32.1%를 차지하였다. 이 비율은 2000년대의 35.6%보다 약간 감소한 것이기는 하지만 2000년대의 추세가 계속되었음을 나타낸다. 두 개 또는 그 이상의 주제 사이의 관계를 분석한 연구 중에는, 하나의 국가나 지역을 대상으로 하면서 두 개 또는 그 이상의 주제를 분석한 유형과 두 개 또는 그 이상의 국가나 지역을 대상으로 하면서 두 개 주제 사이의 관계를 분석한 유형의 두 가지가 있었다. 하나 보다는 두 개 또는 그 이상의 국가를 대상으로 하는 연구에서는 두 개 주제 사이에 나타나는 관계의 유사성이나 상이성의 다양한 유형을 파악할 수 있어 다양한 지식을 얻을 수 있기에 이론적 수준이 높은 결과를 찾을 수 있다. 두 개 또는 그 이상의 국가나 지역을 대상으로 두 개 주제 사이의 관계나 상호 간의 영향을 연구한 논문으로는 중동 및 북아프리카 시민혁명을 대상으로 사회운동과 이미지를 분석한 장철규·양동훈(2011), 남아공과 한국을 대상으로 국가와 정당 간 권력카르텔과 진보정당을 연구한 김영수(2013), 가나와 나이지리아를 대상으로 정보통신 기술의 발달이 정치적 태도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한 오코리, 말셀(Okorie, Marcel 2015), 시에라리온, 방글라데시, 콜롬비아, 우크라이나를 대상으로 정치부패와 선거폭력의 개선 방안을 연구한 정사랑·김영완·최아진(2015), 나이지리아, 니제르, 라이베리아, 말라위, 말리, 부르키나파소, 우간다, 탄자니아 8개국을 대상으로 소득 불평등과 민주주의를 연구한 이양호(2018), 사하라 이남 15개 신생 민주국가를 대상으로 인종적 분열과 선거제도, 그리고 정치적 태도를 연구한 조원빈(2012a), 가나, 나미비아, 나이지리아, 남아공, 레소토, 마다가스카르, 말라위, 말리, 모잠비크, 베냉, 보츠와나, 세네갈, 우간다, 잠비아, 케냐, 탄자니아 16개국을 대상으로 위계로짓모델 통계 방법을 사용하여 총족투표 대 경제투표를 검증한 조원빈(2012f), 사하라 이남 20개 신생 민주국가를 대상으로 원조의 규모와 정부의 책임성을 연구한 조원빈(2012d), 아프리카 국가들을 포함한 167개 국가를 대상으로 정치체제가 내전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한 이재훈(2015)의 연구가 있다. 특히 아프로바로미터(Afrobarometer) 자료

를 사용해 계량 분석을 한 조원빈(2012a, 2012f)의 연구들과 1816년부터 2007년까지의 기간 동안 167개 국가를 대상으로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한 이재훈의 연구는 아프리카 연구에서는 흔하지 않은 교차국가분석을 한 점에서 아프리카 연구에서 새로운 연구 방법이 시도된 긍정적 변화를 나타낸다.

세 번째로, 2010년대에도 이론적으로 수준이 높은 연구 6편이 발표되어 전체 156편의 3.8%를 차지하였다. 이상환(2012)은 경제발전, 반부패, 세계화, 정부형태, 문화의 연관성을 바탕으로 북아프리카 민주화를 경험적으로 분석하였으며, 이성수의 연구(2013)는 민주화 이후의 리비아와 이라크에 이슬람식 민주주의 모형을 적용하는 연구를 하였다. 강상은(2015)은 엘리트-대중 상호관계 이론을 아프리카 내전에 적용하였으며, 임혜란·유혜림(2015)은 발전국가모형을 모로코의 산업전환에 적용하였다. 김은경(2018)은 가나 유권자들의 투표행태를 연구하면서 이들은 종족적 배경이나 정부의 업적보다는 농업 분야의 경제적 이익에 따라 정당을 선택한다는 새로운 이론을 제시하였다. 최현진·곽동명(2019)은 아프리카에서 발생하는 분쟁을 예측할 수 있는 새로운 모형을 개발하였다. 이러한 연구들은 정치 현상에 대한 설명적이고 서술적인 연구가 주를 이루었던 아프리카 연구에서 새로운 모형을 제시하거나 이론을 적용하거나 통계적 방법을 적용하여 실증적으로 가설이나 이론을 검증하는 연구가 증가한 것으로 한국 비교정치학에서 아프리카 연구가 질적으로 성장하고 발전하였음을 나타낸다. 2010년대에 발표된 156편의 논문 중에서 연구의 질적 수준이 높은 것으로 평가할 수 있는 비교연구, 두 개 주제 사이의 상관성을 분석한 연구, 이론적 수준이 높은 연구 세 유형의 논문을 모두 합하면 63편으로 전체 156편의 40.8%를 차지하였다. 이 비율은 2000년대의 49.4%에 비하면 8.6%가 낮아진 비율이다. 이것은 2010년대에 한국 비교정치학에서의 아프리카 연구 편수가 급진적으로 증가하였으나 질적으로 수준 높은 연구의 증가는 이 같은 추세를 따라가지 못하였음을 나타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0년대 아프리카 연구의 40% 정도는 연구의 질적 수준이 높은 것으로 평가할 수 있어서 2000년대에 시작된 아프리카 연구의 질적 수준이 점진적으로 향상되는 추세는 앞으로도 지속할 것으로 기대할 수 있다.

## 6. 한국 비교정치학에서 아프리카 연구의 주제

1963년부터 2020년까지 한국의 비교정치학 분야에서 아프리카 연구들이 분석한 주제<sup>8)</sup>는 <표 3>과 같다. 1960년대에는 아프리카 지역이나 국가에서 나타나는 민족주의에 관한 관심이 높아 10편의 논문 중에서 5편이 이 주제를 연구하였다. 1970년대에는 군부 정치를 다룬 연구가 3편이었고 민족주의, 사회주의, 정당을 다룬 연구가 각 2편씩이었다. 1980년대에는 정치제도를 다룬 연구가 5편이었지만 민족주의나 사회주의를 연구한 논문이 각 4편, 군부 정치를 연구한 논문이 3편이어서 1970년대와 비슷한 양상을 나타내었다. 이러한 연구 추세는 1963년부터 1980년까지의 기간 동안 아프리카에 관한 학자들의 관심은 민족주의, 사회주의, 군부 정치 등의 몇 가지 주제에 집중되어 있었음을 나타낸다. 이러한 연구 경향은 1980년까지 아프리카정치를 특징지었던 군부 정치, 사회주의 정권의 등장과 확대, 독립을 전후한 시기에 팽배하였던 민족주의 의식에 관해 학자들이 시의적절하게 연구한 것을 나타낸다. 1980년대에 들어 정치제도, 정당, 정책, 여성, 정치문화, 정치발전 등 새로운 주제에 관한 연구가 등장하기 시작하였지만, 민족주의, 사회주의, 군부 정치는 여전히 중요한 연구 대상이었다.

1990년대에 들면서 이전과는 다른 주제에 관한 관심이 높아지기 시작하여 민주화에 관한 연구와 이슬람원리주의를 분석한 논문이 각 8편씩 발표되었다. 정치지도자에 관한 연구가 8편 발표된 것은 『중동연구』 17권 2호에 아프리카와 중동의 정치지도자나 중요 인물에 관한 논문들이 특집으로 게재되었기 때문이다. 또한 이후의 아프리카정치에서 중요한 주제가 된 내전이나 분쟁에 관한 연구도 증가하였으며, 이 시기까지도 아프리카 여러 국가가 사회주의 체제를 유지하거나 군부정권이 존속하였기 때문에 이러한 주제에 관한 연구도 지속되었다.

8) 제5장에서 논의한 바와 같이 많은 연구가 두 개의 주제 사이의 관계를 분석하였다. 그러나 이 장에서는 주제가 두 개일 경우 종속변수에 해당하는 주제 하나만을 선택하여 분석 주제로 하였다.

〈표 3〉 아프리카 연구의 주제(10년 단위별)

	연구 주제
1960년대 (10편)	민족주의 5, 관료제·군부 정치·아파트헤이트·정치문화·헌법 각 1편.
1970년대 (16편)	군부 정치 3, 민족주의·사회주의·정당 각 2, 범아프리카주의·보수주의·사회조직과 정치조직·이데올로기·쟁점·정치체제·혁명 각 1편.
1980년대 (36편)	정치제도 5, 민족주의·사회주의 각 4, 군부 정치 3, 국가연합·아파트헤이트·정당·정책 각 2, 권력구조·분쟁·비동맹회의·아프리카학·여성 관련·우자마 정책·인권·자발적 경제개방 조치·정치문화·정치발전·정치부패·정치지도자·지방정치 각 1편.
1990년대 (54편)	민주화·이슬람원리주의·정치지도자 각 8, 내전 4, 분쟁·사회주의 각 3, 군부 정치·정당 각 2, 국가자본주의·권위주의·그린북·독립투쟁·독재자·무슬림형제단·백인 정권·아프리카화·여성 관련·아프리카 연구 동향·연방주의·정치와 경제 변화·정치발전·정치환경·종교정책·통치양식·혁명 각 1편.
2000년대 (101편)	민주화 15, 여성 관련 10, 과거사 정리 7, 내전·노동·시민사회·아프리카 연구 동향·정치발전·종족 갈등 각 4, 국가건설·이슬람과 정치발전·정체성 각 3, 대통령·무함마드 알리·세계화·선거·이슬람·정치경제정책·정치폭력·종교정책 각 2, 교육과 발전·디아스포라·무슬림형제단·민족주의·반테러·사회통합·아프리카연합·아프리카 중심주의·인권·전통사회의 정치와 법·정치담화의 수사(修辭)·정치변혁·정치부패·정치체제와 경제정책·지방분권·최근 정세·축구·헌법재판소·혁명 각 1편.
2010년대 (156편)	민주화 17, 여성 관련 12, 선거 11, 내전 10, 갈등 또는 분쟁 9, 혁명 8, 헌법 7, 정당·정치폭력 각 6, 아프리카 연구 동향 5, 권력구조·무슬림형제단·이슬람원리주의·정치담화의 수사·정치지도자 각 4, 지방분권·부패 각 3, 과거사 정리·불평등·인권·테러 각 2, 거버넌스·경제 저발전·공공부문 개혁·군부 정치·군주와 종교지도자·권력 구조 변화·권리와 권력의 융합·난민·노동·독재·리더십·민영화·발전형 가산제·사법부·사회운동과 이미지·산업전환·시민사회·아파트헤이트·아프리카 중심주의·원조와 정부 책임·위기·위험성 확산·정체성·종교·종족 학살·추장제·표현의 자유·NGO와 정부 관계 각 1편.

출처: 저자가 작성하였다.

2000년대에 들어 한국 비교정치학 분야의 아프리카 연구가 100편 이상 발표되면서 연구 주제도 다양해졌다. 가장 많이 연구된 주제는 민주화로 15편이 발표

되었다. 두 번째는 1980년대와 1990년대에는 각 1편에 불과하였던 여성 관련 주제의 논문이 10편 발표되었다. 이것은 민주화가 진전되면서 여성의 정치참여가 증가하고 여성의 평등에 관한 관심이 높아졌기 때문이었다. 세 번째는 남아공의 민주화 과정에서 과거사 정리에 중요한 역할을 했던 진실과 화해위원회를 분석한 연구가 7편이었다. 민주화가 진전되면서 이와 연관된 노동문제, 시민사회, 정치발전을 주제로 한 연구도 각 4편씩 발표되었다. 그러나 2000년대까지도 101편의 연구 중에서 선거에 관한 연구는 2편에 불과하였고 정당에 관한 연구는 한 편도 없었다. 아프리카대륙에서 “1990년대 초부터 민주화가 시작되고 1990년대 중반까지 40개국에서 복수정당이 참여한 선거가 시행되고 11개국에서 야당이 선거에 승리하여 권위주의체제가 붕괴한 것”(조원빈 2012e, 131)을 고려하면 아프리카를 전공하는 비교정치학자들의 연구가 급변하는 아프리카정치 상황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였음을 나타낸다. 2000년대 아프리카 연구의 주제와 관련해 주목할 점은, 하나의 주제가 한 번의 연구로 끝나버리고 그 주제에 관한 후속 연구가 전혀 없었던 경우가 20편이나 되는 점이다. 이것은 아프리카 지역이나 국가의 정치 상황이 워낙 다양하고 특이해서 나타나는 현상으로 볼 수 있다.

2010년대에 한국의 비교정치학 분야 아프리카 연구가 분석한 주제들에서 나타나는 추세는 2000년대에 나타났던 추세와 유사한 면이 있으나 동시에 다른 면도 있다. 유사한 추세는 민주화에 관련된 주제를 가장 많이 연구해 17편의 연구가 이 주제를 분석한 점이다. 또 여성 관련 주제를 분석한 연구가 12편이나 되는 것도 유사한 추세이다. 그러나 2000년대에는 2편에 불과하였던 선거 관련 주제를 분석한 연구가 11편으로 급격하게 증가한 것은 새로운 변화였다. 이 변화는 2010년대에 들어 다수의 아프리카 국가에서 민주화가 진전되고 민주 선거가 정기적으로 실시되면서 나타난 현상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이에 더해 2000년대 후반부터 아프리카 연구를 활발하게 발표하기 시작한 조원빈의 전공 분야가 선거와 투표행태이고 그의 논문이 2010년대에 들어 많이 발표된 것이 반영된 결과로 볼 수 있다. 이와 더불어 정당, 헌법, 권력구조를 주제로 한 연구도 증가한



것은 민주화 과정에서 헌법개정이 이루어지고 정당이 정치와 선거에서 중요한 주체가 되기 시작한 정치 상황과도 연관이 있다.

2010년대에 들어 한국 비교정치학에서 아프리카 연구의 주제 면에서 나타난 또 하나의 변화는 내전뿐만 아니라 분쟁, 정치 갈등, 정치폭력, 시위 등 비제도적이면서 폭력을 수반하는 정치참여를 분석한 연구가 증가한 점이다. 이것은 아프리카 국가들에서 권위주의 정권이 붕괴하고 민주화 과정이 진행되었지만, 많은 국가에서 민주정치가 제도화되지 못하였음을 나타낸다. 이런 국가들에서는 시위나 폭력적 수단으로 갈등을 해결하거나 이익을 실현하려는 정치적 혼란이 많이 나타났고 아프리카 전공 비교정치학자들이 이러한 현상에 관심을 두고 많이 연구한 결과로 볼 수 있다. 2010년대에도 2000년대와 유사하게 특이한 주제를 분석한 연구가 후속 연구 없이 한 번의 연구로 끝나버린 경우가 16편이 있었다. 2000년대와 2010년대에 기존 연구에 관한 후속 연구가 없는 경우가 36편이나 되었던 것은, 한국 비교정치학에서 아프리카 전공학자들이 다양한 주제에 관해 체계적 연구를 하지 않았기 때문으로 해석할 수도 있지만, 동시에 일부 학자들은 다른 학자는 전혀 관심을 갖지 않는 자기만의 주제를 연구하였던 데에서 나타나는 결과로도 볼 수 있다.

선행연구에서 지적되었던 아프리카 지역연구의 문제 중의 하나는, 아프리카 연구자들이 분과 학문에서 이론적 쟁점이 되는 주제를 지역연구에서 적극적으로 다루지 않아 근대화, 문화다원주의, 종속이론, 개발, 민주주의, 군 쿠데타, 내전 등에 관한 이론 등이 아프리카 사례로 분석되는 연구가 부족하였다는 점이었다. 정치학에서 비교정치학자들이 어떤 주제를 주로 연구하였으며 이러한 주제들이 아프리카 연구에서 어느 정도나 연구되었는가는 신명순(2013)의 선행연구가 참고될 수 있다. 이 선행연구에 의하면, 2003년부터 2012년의 기간 동안 한국의 비교정치학자들이 많이 다룬 주제는 1위 선거, 2위 정치경제, 3위 민주화, 4위 정당, 5위 정보화, 6위 의회, 7위 정책, 8위 연방, 9위 이민, 10위 종족 갈등, 11위 세계화, 12위 개혁, 13위 민족주의, 14위 시민사회, 15위 노동, 16위 리더십, 17위

정치발전, 18위 정치지도자, 19위 대통령, 20위 비교정치 이론, 21위 헌법, 22위 여성, 23위 지방정치, 24위 국가, 25위 사회운동 등이었다(181). 이러한 결과를 분석 대상 시기가 거의 겹쳤던 이 연구의 2000년대와 비교해 보면, 민주화, 노동, 시민사회, 종족 갈등, 정치발전, 세계화, 대통령 등의 주제는 아프리카 연구에서도 자주 연구 주제가 되어, 한국의 비교정치학 연구와 비교정치학 분야의 아프리카 연구는 연구 주제에서 큰 괴리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한국의 비교정치학에서 중요한 연구 주제였던 선거, 정당, 의회, 정책, 개혁 등이 한국 비교정치학의 아프리카 연구에서는 별로 연구되지 않았다. 이것은 아프리카 국가들이 민주화를 시작한 지가 얼마 되지 않아 정치제도화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정치가 정당, 의회, 선거, 정책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지 않는 현실을 반영한 것이라 할 수 있다. 한국의 비교정치학 연구에서는 22위였던 여성 관련 주제가 아프리카의 민주화 이후에는 많이 연구된 것은 특이한 추세로 볼 수 있다. 아프리카 국가들이 직면하고 있는 특수한 정치 상황을 반영하는 과거사 정리, 내전 등의 연구 주제를 제외하면, 한국 비교정치학에서의 아프리카 연구는 한국 비교정치학의 중요한 연구 주제를 적절하게 수용하여 연구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 7. 결론

이 연구는 1963년부터 2020년까지 57년 동안에 한국 비교정치학 분야에서 발표된 아프리카 관련 학술논문을 대상으로 이 기간에 있었던 연구의 변화와 발전을 시기별 연구 편수, 연구 대상 지역이나 국가, 연구 방법과 연구의 이론적 수준, 그리고 연구 주제를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특히 이 연구는 연구 대상 기간에 발표된 학술논문들의 질적 수준의 변화를 시기별로 분석하였다. 한국 비교정치학에서 아프리카 연구는 1960년대부터 1980년대까지는 활발하지 않았으나 1990년대에는 10년 동안에 56편의 학술논문이 발표되어 활성화되기 시작하였다. 2000년대에는 연구 편수가 101편으로, 그리고 2010년대에는 156편으로 증가하

는 급진적 성장을 보였다.

한국 비교정치학에서 아프리카 연구는 연구 대상으로 삼은 지역이나 국가 면에서도 큰 변화가 있었다. 1970년대에는 지역연구의 비중이 81.2%, 1980년대에는 58.3%를 차지하던 것이 1990년대부터는 개별 국가나 두 개 이상의 국가를 분석하는 연구가 77.8%를 차지하였고 2000년대에는 84.2%, 2010년대에는 78.8%를 차지하였다. 분석 대상으로 삼은 국가의 다양화 경향을 보면, 1960년대에는 6개국, 1970년대에는 3개국, 1980년대에는 9개국에 불과하던 것이, 1990년대에는 17개국, 2000년대에는 18개국으로 증가하였고 2010년대에는 36개국으로 증가하였다. 이것은 1990년대부터 학자들의 관심이 다양한 국가들로 확대되었음을 나타낸다. 이러한 시기적 변화에도 불구하고 전체 기간에 연구된 국가들을 보면 이집트와 남아공을 분석한 연구가 집중적으로 이루어졌고 나머지 국가들에 관한 연구는 저조한 문제가 있었다.

연구 대상으로 삼은 국가 면에서, 1990년대에 나타난 새로운 변화는 두 개 이상의 국가를 분석하는 연구가 증가하기 시작한 점이다. 1960년대에는 두 개 국가를 연구한 논문이 한 편, 1980년대에는 3개 국가를 분석한 연구가 한 편에 불과하던 것이 1990년대에는 2개 이상의 국가를 분석한 연구가 5편으로 증가하였고 전체 연구의 9.3%를 차지하였다. 2000년대에는 이 비율이 17.9%로 증가하였고 2010년대에는 16%였다. 1963년부터 2020년까지의 전체 기간으로 보면 전체 373편의 연구 중에서 지역연구가 26.8%, 1개 국가를 분석한 사례연구가 59.8%, 2개 이상의 국가를 다룬 연구가 13.4%를 차지하였다. 하나의 주제를 분석하더라도 두 개 또는 3개의 국가를 대상으로 분석하면 사례연구 때보다는 더 다양한 유사성과 상이성을 파악할 수 있어 질적으로 더 높은 결과를 얻을 수 있다. 이런 점에서 1980년대를 시작으로 아프리카 연구의 질적 수준이 조금씩 높아진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한국 비교정치학 분야의 아프리카 연구에서는 연구 방법과 이론적 차원에서도 시기적으로 변화가 있었다. 연구의 질적인 수준을 높였던 첫 번째 변화는 분석하

는 주제의 수가 두 개로 증가한 것이다. 1960년대와 1970년대에는 부룬디와 말리 두 개 국가를 분석한 한창규(1965)의 논문을 제외한 모든 연구가 하나의 국가를 대상으로 하나의 주제를 서술적으로 분석하는 연구였다. 그러나 두 개의 주제를 분석한 연구가 1980년대에 처음 등장하면서 7편(19.4%)이 발표되었고, 1990년대에는 6편(11.1%)이 발표되었다. 2000년대에는 두 개의 주제를 분석한 연구가 36편(35.6%)으로 증가하였고 2010년대에는 50편(32.1%)으로 증가하였다. 2000년대 이후에 이러한 유형의 연구가 전체의 3분의 1을 넘게 된 것은 연구의 질적 향상 면에서 매우 중요한 발전이었다.

연구의 질적 수준을 평가하는 면에서 1980년대에 나타난 변화는 한국 비교정치학의 아프리카 연구에서 첫 비교연구가 발표된 점이다. 비교연구 방법을 사용한 논문은 1990년대에 3편, 2000년대에 6편, 2010년대에 7편이 발표되었다. 비교연구는 두 개 이상의 사례에서 나타나는 유사성과 상이성을 파악하는 방법이기에 때문에 연구의 질적 수준을 높이는 연구 방법이지만 비교연구의 수가 많지 않아 연구의 질적 수준을 높이는 데는 기여도가 낮았다.

연구의 질적 수준을 평가할 수 있는 또 하나의 기준은 연구의 이론지향적 성격을 파악하는 것이다. 이론지향적이거나 이론적 수준이 높은 연구들은 1960년대에 1편, 1970년대에 1편, 1980년대에 2편, 1990년대에 3편, 2000년대에 8편, 그리고 2010년대에 6편이 발표되었다. 이러한 연구들은 한국 비교정치학의 학문적 발전에 기여하고 연구의 질적 수준을 높이는 것이었지만, 비교연구 방법을 사용한 연구들과 마찬가지로 이론적 성격의 연구 편수도 많지 않았다. 이 점은 앞으로 한국 비교정치학의 아프리카 연구에서 극복해 나가야 할 과제이다.

연구의 질적 수준을 높이는 연구들인 비교연구, 두 개 주제 사이의 관계를 분석하는 연구, 이론적 수준이 높은 연구들은 1960년대부터 1980년대까지는 그 수가 미미하여 아프리카 연구의 질적 수준이 낮았다. 그러나 1990년대에는 전체 학술논문에서 차지하는 이들 세 가지 유형의 연구들이 22.2%를 차지하였고 2000년대에는 49.4%로 크게 상승하였고 2010년대에는 그 비율이 40.8%를 차지

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2000년대부터는 한국 비교정치학에서 아프리카 연구의 거의 절반에 가까운 연구가 질적으로 높은 수준의 연구로 평가할 수 있다는 것을 나타낸다. 이 결과는 한국의 아프리카 연구의 질적 수준은 아직도 낮은 수준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연구자들의 인식이 잘못된 것이며, 한국 비교정치학에서 아프리카 연구는 2000년대부터 질적인 면에서도 발전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한국 비교정치학 분야의 아프리카 연구는 분석 대상으로 삼은 주제 면에서도 시기적으로 변화가 있었다. 1960년대부터 1980년대까지는 민족주의, 군부 정치, 사회주의 등의 주제가 주로 다루어졌다. 그러나 1990년대부터 2020년까지의 기간에는 민주화, 여성, 선거, 정당 등의 새로운 주제를 분석한 연구가 많이 발표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긍정적 주제만이 아니라 내전, 분쟁, 정치폭력, 갈등, 시위 등의 부정적 주제를 분석한 연구도 증가하였다. 연구 주제 면에서 나타나는 이러한 특징은 2000년 이후의 아프리카정치에서 민주화의 진전과 선거의 시행, 여성의 정치참여와 권리 증진 등의 긍정적 변화와 함께 아프리카 국내 정치를 분열시키고 정치안정을 위협하는 비제도적이고 폭력적인 갈등이 공존하고 있음을 나타낸다.

이 연구에서 밝힌 결과를 바탕으로 한국 비교정치학에서의 아프리카 연구의 과제를 제시하면 아래와 같다. 첫째로 연구의 숫자가 2000년대 이후 급증한 것은 그동안 계속되어온 아프리카 연구에 대한 지원(황규득 2016, 162)들과 한국외대, 경희대, 명지대, 배재대, 영산대, 한양대 등에 설립된 아프리카 관련 연구소들의 연구 활동, 그리고 한국연구재단이 개인 연구자에게 지원한 연구비의 확대에 따른 결과라 할 수 있다. 이와 함께 1990년대와 2000년대에 아프리카를 전공하는 비교정치학자들이 증가하였고 이들이 활발한 연구 활동을 한 결과이다.

이 연구에서 중점을 두고 분석한 아프리카 연구의 질적 수준 면에서는 2000년대부터 긍정적 발전이 많이 이루어졌으나 아직도 부족한 부분이 많다. 특히 방법론에서 비교연구 방법을 사용한 연구의 수가 적고 시간이 지나도 비교연구 논문이 차지하는 비율이 증가하지 않고 있다. 연구 대상인 국가의 수에서 두 개 이상

의 국가를 분석하는 연구가 2000년대부터 완만하긴 하지만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고 또 두 개 주제 사이의 관계를 분석하는 연구도 많이 증가하고 있어서 이 두 가지 추세가 결합한다면 비교연구 논문의 수도 점진적으로 증가할 수 있을 것이다.

한국 비교정치학에서 아프리카를 연구한 학술논문이 연구 대상으로 선택한 국가들은 1990년대부터 다양성을 나타내기 시작하였으나 전체 시기로 보면 이집트와 남아공의 두 국가를 분석한 연구가 집중적으로 이루어졌다. 아프리카의 모든 국가에 관한 대등한 수의 연구가 이루어질 필요는 없으나, 연구의 대상이 되기에 충분한 문제를 가진 국가들이 제대로 연구되지 않고 있는 것은 문제이다. 아프리카를 전공하는 학자가 자신이 전공하는 국가를 집중적으로 연구하는 것은 중요한 일이지만 전공하는 국가에서 나타나는 주제(예를 들면 선거, 분쟁, 부패, 여성문제 등)가 인접 국가에서도 발생한다면 이러한 국가로 연구를 확대하는 것은 큰 어려움 없이 시도될 수 있을 것이다.

한국 비교정치학에서 아프리카 연구의 질적 수준과 관련해 방법론에서 부족한 점은 많은 수의 국가를 대상으로 하는 교차국가분석 연구가 적은 점이다. 교차국가분석은 개인 연구자가 자료를 수집하는 일이 쉽지 않아 연구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으나 아프리카 연구에서는 아프로바로미터(Afrobarometer) 여론조사기관의 자료를 이용하면 다양한 연구가 가능할 수 있다. 아프리카 지역연구에 관한 선행 연구자들이 지적하였던 자료의 제약이나 자료접근의 제약성은 2021년의 시점에서는 인터넷을 통해 세계 각국의 자료를 쉽게 접근하고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자료접근 문제는 큰 문제는 되지 않을 것이다. 선행연구자들이 제안했던 ‘지역연구자’와 ‘분과 학문 연구자’의 학문적 소통이나 협력도 ‘지역연구자’가 통계 방법의 사용에 어려움이 있다면 ‘분과 학문 연구자’ 중에서 통계 방법에 익숙한 학자와 공동연구를 하는 것도 연구의 질적 수준을 높이는 데 이바지할 수 있을 것이다.

앞으로 “한국 국제정치학에서 아프리카 연구” 같은 후속 연구가 이루어진다면 한국 정치학계에 아프리카 연구에 관한 종합적 지식과 정보를 제공하게 될 것이

다. 더 나아가서 “한국 경제학에서의 아프리카 연구”나 “한국 인류학에서의 아프리카 연구” 등의 후속 연구가 이루어진다면 “한국의 아프리카 지역연구”에서 부족하였던 점들을 보완하는 데도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한다.

## 참고문헌

- 강상운. 1955. “자유 민주정치와 공존 민주정치.” 『중앙대 법정논총』 1집, 24-32.
- 강상운. 2015. “중족, 신가산제, 그리고 아프리카 내전: 엘리트-대중 상호관계 이론.” 『세계정치』 22권, 265-306.
- 강치원. 1985. “아프리카의 정치문화와 이 지역의 공산 세력 수용현황과의 상관성 분석: 1945-1981년까지를 중심으로.” 『국제정치논총』 24집 2호, 235-264.
- 구범모. 1967. “비교정치학 20년의 반성.” 『한국정치학회보』 2집, 7-75.
- 김기범. 1955. “대통령책임제와 내각책임제.” 『화백』 1집, 83-93.
- 김영두. 1955. “삼권분립제도의 근본 문제: 헌법이 국가다 - 아리스토텔레스.” 『고려대학교 50주년 기념논문집』, 321-349.
- 김영문. 1982. “권력구조의 변화와 정책 결정: 이집트 사례연구.” 『한국중동학회논총』 3권 1호, 7-38
- 김영수. 2007. “공공부문 신자유주의 정책에 대한 노동운동의 공공성: 남아공과 한국의 비교.” 『국제지역연구』 11권 2호, 33-56.
- \_\_\_\_\_. 2013. “국가와 정당 간 권력 카르텔과 진보정당: 남아공과 한국의 사례를 중심으로.” 『마르크스주의연구』 10권 1호, 161-185.
- 김태균. 2020. “아프리카 지역의 평화-개발 연계와 평화 조건의 성공 요인: 나미비아와 모잠비크 사례 비교연구.” 『국제·지역연구』 29권 2호, 151-178.
- 김태창. 1977. “알제리아 혁명의 원인에 관한 연구: 구조·기능적 및 심리·동태적 접근.” 『충북대 논문집』 13집, 1-16
- 김형수. 1955. “근대 독일과 이태리의 정치적 변천.” 『중앙대 법정논총』 1집, 33-48.
- 김훈. 2001. “남아공에서의 민주적 이행 사례: '국가-정치사회-시민사회' 영역 간의 내부 동학 분석을 중심으로.” 『한국아프리카학회지』 13집, 33-53.
- 김희오. 1993. “아프리카 국가의 정당과 정치참여 연구.” 『동국논집』 12집, 221-242.
- 박관숙. 1955. “다수결의 원리.” 『이화』 10집, 16-25.
- 박원탁. 1996. “아프리카 지역연구의 현황과 과제.” 『아프리카연구』 8,9집, 1-15.
- \_\_\_\_\_. 정영태 · 조부연. 1998. “아프리카의 현황과 과제.” 이상섭 · 권태환 편.



- 『한국의 지역연구: 현황과 과제』, 187-207. 서울: 서울대학교 출판부.
- 박찬기. 2014. “튀니지와 이집트 ‘아랍의 봄’ 비교연구.” 『국제정치연구』 17권 2호, 27-51.
- 박희정. 1996. “아프리카의 개인주의 독재자 연구: 은구에마, 보카사, 아민을 중심으로.” 『한국아프리카학회지』 8집, 39-62.
- \_\_\_\_\_. 1998. “케냐와 남아프리카공화국의 아프리카화(Africanization)정책 비교.” 『아프리카연구』 10집, 23-69.
- 배향달. 1968. “아프리카의 민족주의와 그 문제점: Black Africa를 중심으로.” 『안동교대 논문집』 1권 1호, 85-98.
- 서상현. 2006. “남아공 민주화에 대한 이론적 접근과 민주화 이행의 환경.” 『한국아프리카학회지』 23집 1호, 37-78.
- 신명순. 2013. “한국정치학에서 비교정치연구: 2003년부터 2012년까지” 한국정치학회 편, 『한국정치학회60년사(증보분) 2003-2013』, 152-199. 서울: 한국정치학회.
- 신원용. 1997. “아프리카의 정치적 전통과 식민주의, 민주주의의 전망.” 『한국아프리카학회지』 9집, 177-195.
- \_\_\_\_\_. 2003. “민주주의 이행과 시민사회에 관한 이론적 연구: 남아공화국의 사례 연구” 『한국아프리카학회지』 18집, 165-194.
- 안승훈. 2016. “중동의 세속 공화정, 이슬람 왕정, 세속 왕정 체제 간 이슬람주의 운동 비교연구: 이집트, 터키, 사우디아라비아, 요르단을 중심으로.” 『한국중동학회논총』 37권 2호, 109-142.
- 오재익 · 조원빈. 2018. “선거제도와 민주주의 공고화: 아프리카 3개국 비교분석.” 『한국아프리카학회지』 53집, 159-200.
- 오종훈. 1987. “범아프리카주의와 아프리카 민족주의.” 『킬리만자로』 1권 1호, 15-31.
- 왕선애. 1996. “앙골라 분쟁연구: 세력 균형론을 중심으로” 『한국아프리카학회지』 8집, 21-37.
- 유정열. 1968. “통일아랍공화국의 군부와 정치.” 『해외문제』 4권 1호, 53-69.

- 윤경우. 1981. “아프리카에 있어서 정당과 국민통합에 관한 연구.” 『건국대 학술지』 25집 1호, 117-141
- \_\_\_\_\_. 1984. “아프리카 민족주의와 사회주의.” 『아카데미논총』 12집 1호, 219-243.
- 이상환. 2012. “북아프리카의 민주화 흐름에 대한 경험적 해석: 경제발전, 반부패, 세계화, 정부형태, 문화와의 연관성을 중심으로.” 『한국정치외교사논총』 33집 2호, 155-181.
- 이성수. 2013. “이슬람식 민주주의 모델과 아랍 민주화 이후의 민주주의: 리비아와 이라크를 중심으로.” 『한국중동학회논총』 33권 3호, 101-132.
- 이양호. 2018. “아프리카의 소득 불평등과 민주주의: 나이지리아, 니제르, 라이베리아, 말라위, 말리, 부르키나파소, 우간다, 탄자니아를 중심으로.” 『세계지역연구논총』 36집 4호, 51-78.
- 이영규. 1967. “아프리카 민족주의의 본질에 관한 정치문화적 구조의 분석.” 『단국대 논문집』 1집, 79-93.
- 이재훈. 2015. “정치체제가 내전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경험적 연구.” 『글로벌정치연구』 8권 1호, 145-175.
- 이종택. 1997. “수단 내전 과정 연구: 이슬람화와 남부 독립투쟁.” 『한국이슬람학회논총』 7집 1호, 151-168.
- 이호재. 1969. “나트세르의 적극 중립정책과 에집트정치.” 『국제정치논총』 9집, 146-165.
- 임혜란 · 유혜림. 2015. “아프리카 모잠비크의 산업전환과 발전국가 모델의 적용 가능성.” 『한국정치연구』 24집 2호, 231-261.
- 장철규 · 양동훈. 2011. “디지털 시대의 사회운동과 이미지의 관계에 대한 연구: 중동 및 북아프리카 시민혁명을 중심으로.” 『AURA』 25집, 75-88.
- 정사랑 · 김영완 · 최아진. 2015. “신흥 민주국가의 민주적 거버넌스 확립: 정치부패와 선거폭력의 개선 방안 연구.” 『동서연구』 27권 3호, 65-100.
- 조병남 · 성영실 · 남기정 · 이정민. 2008. “김대중 대통령과 넬슨 만델라 대통령의 리더십 비교분석.” 『숙명리더십연구』 8집, 97-133.
- 조원빈. 2012c. “아프리카인들이 이해하는 NGOs와 정부의 관계.” 『다문화사회연

- 구』 5권 2호, 43-70.
- \_\_\_\_\_. 2012d. “아프리카인들이 바라보는 원조의 규모와 정부의 책임성.” 『정치·정보연구』 15권 2호, 37-70.
- \_\_\_\_\_. 2012e. “한국의 아프리카 연구 동향.” 『아시아리뷰』 2권 2호, 129-148.
- \_\_\_\_\_. 2012f. “아프리카인들의 투표행태 분석: 종족투표 대 경제투표” 『국제·지역연구』 21권 4호, 139-163.
- 최동주. 2006. “저개발국 내전 형 분쟁의 사회경제적 배경: 아프리카 분쟁의 대안적 분석 모델 모색.” 『국제지역연구』 9권 4호, 363-391.
- 최영철. 2005. “튀니지 정부의 종교정책과 그 한계에 대한 비교연구.” 『한국중동학회논총』 26권 1호, 35-56.
- 최종오. 1994. “아프리카 국민형성에 관한 패러다임.” 『아프리카연구』 7집, 91-106.
- 최현진·곽동명. 2019. “Forecasting Rebel Violence: 빅데이터를 활용한 아프리카 분쟁 예측모형 개발.” 『평화연구』 27권 1호, 283-312.
- 하경근. 1963. “남아공화국의 Apartheid 정책연구: 주로 원주민문제를 중심으로.” 『국제정치논총』 1집, 48-65.
- \_\_\_\_\_. 1965. “후진국에 있어서의 민족주의: 주로 아시아□아프리카 지역의 일반적인 Pattern중심으로.” 『국제정치논총』 4-5집, 5-22.
- 하병주. 1986. “아랍지역 군사쿠데타의 특성.” 『한국중동학회논총』 7권 1호, 153-169.
- 한건수. 2013. “한국의 아프리카 지역연구: 주제별 현황과 방법론적 성찰.” 『아시아리뷰』 3권 1호, 159-193.
- 한동섭. 1955. “영국 헌법에 있어서의 법 지배.” 『고려대 50주년 기념논문집』 373-391.
- 한상무. 1964. “아프리카 내셔널리즘.” 『숙대 논문집』 4집, 203-228.
- 한양환. 2008. “아프리카 사회통합 모형 구축을 위한 마다가스카르와 모리셔스의 다종족사회 비교분석.” 『국제지역연구』 12권 2호, 387-412.
- 한창규. 1965. “아프리카에 있어서의 헌법과 그 실제: 특히 Burundi와 Mali를 중심으로.” 『성대 사회과학』 2집 1호, 133-149.

- 홍명희. 2016. “국내 아프리카 연구의 현황과 과제.” 『비교문화연구』 44집, 373-391.
- 홍순남. 1986. “비동맹회의와 아프리카의 정치.” 『한국아프리카학회지』 1집, 207-221.
- \_\_\_\_\_. 1993. “이집트의 무슬림형제당과 이슬람사회운동.” 『한국중동학회논총』 14권, 11-20.
- 홍순남·정상률. 1998. “알제리 정치발전과 테러리즘.” 『한국중동학회논총』 19권 1호, 183-263.
- 황규득. 2007. “남아프리카공화국의 대통령제: 정치구조와 권력메커니즘을 중심으로.” 『한국아프리카학회지』 26집, 205-227.
- \_\_\_\_\_. 2016. “한국의 아프리카 지역연구: 현황과 과제.” 『한국아프리카학회지』 47집, 157-181.
- 황병하. 1999. “이집트와 이란의 원리주의운동 비교.” 『한국이슬람학회논총』 9집 1호, 1-26.
- \_\_\_\_\_. 2000. “이슬람원리주의의 사례별 비교분석과 미래에 대한 전망: 이집트, 알제리, 이란을 중심으로.” 『한국이슬람학회논총』 10집 1호, 143-171.
- Cho, Wonbin. 2012a. “Ethnic Fractionalization, Electoral Systems and Political Attitudes in Africa.” 『한국아프리카학회지』 36(1): 173-197.
- \_\_\_\_\_. 2012b. "Accountability or Representation? How Electoral Systems Promote Public Trust in African Legislatures." *Governance* 25(4): 617-637.
- Elaskary, Mohamed. 2015. “Witchcraft, Politics, and Power: A Comparative Analysis of Hosni Mubarak as a Modern Day Macbeth.” 『한국중동학회논총』 36(2): 133-155.
- Hong, Jin-Ju. 1999. “Women and the transition to democracy in South Africa.” *Asian Journal of African Studies* 11: 161-192.
- Jang, Ji-Hyang. 2009. “Differentiated Modes of Interest Representation and the Politics of Transitional Regimes in Turkey and Egypt.” *International Area Review* 12(1): 81-99.
- \_\_\_\_\_. 2010. “Explaining and Theorizing Development: Historical Structures and

- Strategic Preferences in the Comparative Political Economy of the Middle East and North Africa.” *The Korean Journal of Area Studies* 28(2): 213-232.
- Kim, Chang H. 1987. “Local Politics and Economic Success in Kenya: The Case of Murang'a.” 『한국아프리카학회지』 2: 79-98.
- Kim, Dongsuk. 2012. “Identity and Massive Civilian Killings in African Secessionist Wars: Comparing Eritrean and Casamance Wars.” 『한국아프리카학회지』 36: 147-171.
- Kim, Eun-Kyung. 2018. “Sector-based vote choice: A new approach to explaining core and swing voters in Africa.” *International Area Studies Review* 21(1): 28-50.
- Kim, Pan Suk·Firehiwot G. Araya. 2013. “Public Sector Reform in the Path to Reconstruction in Africa: A Comparative Analysis of Rwanda and Mozambique.” 『공공관리학보』 27(1): 115-140.
- Okorie, Marcel. 2015. “The Advent of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Technology and its Impact on Political Activities in Ghana and Nigeria.” *Journal of Global Politics* 8(2): 143-162.
- Park, Sang Seek. 1984. “A Theory of Withering Away of The Party: A Comparative Study of The Union Government in Ghana.” 『한국외대 아프리카 종합연구논총』 63-80.
- Seo, Jeong-Min. 2008, “A Comparative Study of Political Violence in Algeria and Mexico.” 『중동연구』 27(1): 83-108.
- Seo, Sang-Hyun. 2010. “Macro-Structural Factors for Democratization in South Africa: Racial and Ethnic Cleavages in Apartheid period.” *International Area Studies Review* 13(1): 127-154.
- Shin, Won-Yong. 1996. “Democratic Transition from Elites: A Theoretical Analysis of Negotiated Transition with Special Reference to South Africa.” *Asian Journal of African Studies* 8-9: 117-144.
- Wang, Sun-Ae. 2016. “The Role of Mozambican Women in Community Development: Comparative Reflections on the Role of the Capable Woman in the Book of

Proverbs 31: 10-31.” 『포르투갈·브라질연구』 13(2): 49-76.

Wiarda, Howard. 1993. *Introduction to Comparative Politics: Concepts and Processes*  
Belmont, CA: Wadsworth Publishing.

투고일: 2021.06.15. 심사일: 2021.07.20. 게재확정일: 2021.08.09.

## African Studies in Korean Comparative Politics(1963-2020)

Shin, Myungsoon | Yonsei University

This study analyzes the development of research on Africa in the field of comparative politics in Korea based on the analysis of 373 scholarly articles published from 1963 to 2020. The number of research on Africa drastically increased from the year 2000. There have been significant changes in the research on Africa in comparative politics before and after the 1990s in Korea. Research focusing on African continent-wide trends gave way to the single country-focused studies. Single country studies have decreased and multi-country studies increased. In addition to the single topic focused analysis, studies analyzing the relationship between two or more topics have increased. Comparative analysis and cross-national analysis methods were newly introduced since the 1980s and they continued as a trend afterward. Theory-oriented researches have increased during the same period. Nationalism, military politics and socialism were popular research subject until the 1980s while democratization, gender politics, election, civil war, political violence and conflict became popular research subjects since the 1990s.

---

**Key Words** | African Studies in Korean Comparative Politics, Case Study and Comparative Analysis, Theory-Oriented Research, Democratization, Civil War